

11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513.37 (-10.06)	709.42 (+3.22)
금리 (연율)	환율 (원/달러)
2.820 (-0.057)	1339.60 (-4.10)

‘금추’ 된 배추·상추 고기에 상추 쌈쌔 판

르포 추석 앞둔 전통시장·마트

“추석 앞두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과일이란 채소, 떡, 사야할 것들은 많은데 지갑을 열 엄두가 안나네요. 그나마 지금 고기는 선물세트가 들어와서 다행이지,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어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11일 방문한 부천 자유시장은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로 북적거렸다. 장바구니와 수레를 끌고 다니며 추석 먹거리를 구매하는 고객들로 시장은 활기를 띠고 있었다. 하지만, 오를대로 오른 채소 가격에 장바구니는 채워지지 않은 모습이였다.

채소가게에 붙여진 가격표에는 배추 한 단에 1만4000원, 깻잎 한 바구니 4000원, 상추 한 바구니 6000원이라고 적혀있었다. 주부 A 씨는 “상추가 한 바구니에 6000원이라니 놀랍다”며 “상추에 고기를 싸먹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고기에 상추를 싸먹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한숨쉬었다.

**배추 한 단에 1만4000원 육박
시금치 200g에 1만3000원
주부들 고물가에 한숨 깊어져**

**정부 물가대책에도 효과 미미
그나마 과일·고기값은 안정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해 배추와 무 가격은 작년 추석 때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배추 중도매 가격은 10kg에 2만7820원으로 작년보다 94.6%나 올랐고, 무도 20kg에 2만8800원으로 58.6% 상승했다.

제수에 오를 시금치도 무더위로 작황이 부진해 물량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한단(200g)에 평균 1만3280원으로 전주보다 61.8% 올랐다. 폭염과 긴 장마로 배추와 무 출하량이 적어진 게 가격인상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60대 주부는 “올해는 두 아들 부부가 모두 집으로 오기로 해서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해야 하는데 채소 가격이 이렇게 비싸서 큰일이다”라며 “추석 끝나고 김장도 해야하는데 벌써부터 무섭다”고 토로했다.

사과와 배 등 추석 상차림에 오를 과일을 고르는 고객들이 제법 보였다. 채소 가격은 오를데 반해 육류와 과일 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해 체감상 부담이 덜한 분위기였다.

실제로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추석 성수품 중 과일은 올해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해에는 작황 악화로 공급이 줄어들며 가격이 급등했지만, 올해는 공급·출하량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내렸다. 고온과 가뭄 피해가 컸던 채소 품목과 다르게 사과와 배는 병해충 발생 감소와 태풍의 피해가 없어 생육환경이 전반적으로 양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과 중도매가격은 10kg당 7만7980원으로 지난해보다 4.2% 내렸고, 배 역시 15kg당 6만4760원으로 8.3% 하락했다. 축산물 가격도 안정세를 띠고 있다. 한우 도매가격은 1kg당 1만8379원으로 작년보다 4.5% 하락했으며, 닭고기 22.4% 내렸다.

채소가게를 운영하는 B씨는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고 했는데, 체감 물가는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며 “작년에는 과일 가게 상황이 어려웠는데, 올해는 채소가게들이 올상이다. 나물류는 상태도 안좋은데 가격만 비싸서 주문도 안넣었다”고 말했다.

같은날 방문한 대형마트는 시장보다 가격이 좀 더 저렴한 편이었다. 대형마트 경우 사전에 대량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농산물’을 적용해 최대 3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서울시 8개 자치구내 대형마트·전통시장·가락시장(가락몰) 총 25곳을 대상으로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을 조사한 결과 6~7인 가족 기준 올해 대형마트 구매비용은 평균 28만8727원으로 전년 대비 8.4% 상승했고,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평균 24만785원으로 전년 대비 7.4% 상승했다.

과일은 대형마트가, 채소·육류는 전통시장이 저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 무, 사과 등 주요 성수품 20종을 총 17t 추가 공급하고, 유통업체와 협력해 최대 60%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11일 경기도 부천시 부천자유시장에 배추가 진열돼 있다. /손진영 기자 son@



10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州) 필라델피아의 국립헌법센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 왼쪽)과 민주당 대선 후보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간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해리스 vs 트럼프, 초박빙 꺾 결정타는 없었다

美 대선후보 첫 번째 TV토론 경제·이민·외교 등 이슈 격돌

미국 정치 역사상 가장 큰 주목을 받은 10일(현지시간) 첫 번째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격돌했다. 전 세계의 눈이 두 후보에 쏠리는데 초박빙 구도를 꺾 만한 결정타는 없었다는 평이 나왔다.

이날 TV토론은 오후 9시부터 미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국립헌법센터에서 ABC 주최로 약 100분간 진

행됐다. 두 후보는 악수하며 TV토론을 시작했다. 해리스 후보는 먼저 트럼프 후보에게 다가가 “카멀라 해리스다”며 손을 내밀었고, 이에 트럼프 후보도 손을 맞잡으면서 인사가 이뤄졌다.

경제, 이민, 낙태, 외교 등 다양한 이슈를 놓고 양보 없는 진검승부를 펼친 가운데 민주당 해리스의 날선 질문에 트럼프가 예상 밖으로 수세에 몰리는 모양새다.

대통령 후보로서 처음 트럼프를 대면한 해리스는 검사출신답게 트럼프를 겨냥한 준비된 멘트로 트럼프를 공

략했다. 트럼프 임기가 끝날 무렵 미국 경제가 엉망이었고 중소기업 감세 등을 거론했고 트럼프 후보의 공약은 부자들을 위한 “억만장자와 기업을 위한 감세”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도 이민 문제로 해리스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는 불법 이민자가 넘쳐 미국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미국을 범죄 소굴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곧 불법 이민자들이 개와 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언급하는 실수로 이어졌다.

(3면에 계속)

/최규춘 기자 ch9720@

그래미상도 넘보는 AI... 창작 인정 ‘갑론을박’

레코딩 아카데미, AI 창작음악 허용 예술가 저작권 침해 논란도 잇따라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에서 올해 초 그래미 시상식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음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익명의 프로듀서 ‘고스트라이터’가 래퍼드레이크(Drake)의 보컬 트랙을 사용한 AI 기반 음원이 그래미상 후보로 제출되기도 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콘텐츠 산업에 빠르게 도입되면서 음악 창작 환경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AI 창작 음악이 허용되는 사례들이 등장하면서, 음악 산업의 판도도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AI가 창작한 음원에 대해 창작의 경계를 확장하는 ‘혁신’이라는

평가와 인간 고유의 저작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11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그래미 어워드를 주최하는 레코딩 아카데미에서 AI 창작 음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해외 암호해독 전문 매체 디크립트(Decrypt)에 따르면 레코딩 아카데미의 CEO인 하비 메이슨 주니어가 2024년 그래미 시상식에 AI의 도움을 받아 창작된 음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인간만이 시상식에 출품할 수 있으며, AI는 창작 과정에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면서 “창의적 측면에서 인간이 쓴 곡은 AI를 활용해도 후보로 고려될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AI창작음악 시장의 규모도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시장분석업체 마켓닷

어스에 따르면 세계 AI창작음악 시장의 규모는 지난해 약 2900억원에서 2032년 약 3조 3800억원으로 11배 이상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국·내외 IT 기업에서 AI창작음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는 CJ ENM이 AI 스타트업 포자랩스와 협력해 AI 음원 제작 서비스 ‘비오디오’를 개발했다. 이 기술은 키워드만 입력하면 5분 안에 사용자가 원하는 배경 음악을 생성해준다. 포자랩스 관계자는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면서 “음원의 저작권자, 유통사 및 판매자가 모두 포자랩스로 동일해 ‘저작권 침해’ 또는 ‘수익 제한’ 등의 문제 없이 음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4면에 계속) /이혜민 기자 hyem@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여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2차 가해 처벌 방안 마련” /사진 뉴시스
- ▲ 김용현, 카메룬·핀란드 국방장관과 양자회담... 방산협력 논의

- ▲ 조태열 “일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 9월 힘들어”
- ▲ 야, 김건희·채상병특검·지역화폐법법사위 단독 처리... 여당은 퇴장



- ▲ 통일차관 “북한인권 검토때 억류 선교사 문제 환기시킬 것”
- ▲ 이재명 “민생회복지원금 차등지원이라도 해야... 무식한 거냐” /사진 뉴시스

멈추지 않는 재계의 시계... 추석 연휴에도 종횡무진 행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해외사업장 점검·직원격려 예상

최태원 SK그룹 회장

미래사업 포트폴리오 구축할 듯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美 조지아 메타플랜트 방문 전망

구광모 LG그룹 회장

AI·밸류업 위한 구상 나설 것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왼쪽부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처럼 추석 연휴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보낼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겠지만 재계 총수들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바쁜 시간을 보낼 전망이다.

국내 총수들은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국내외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하반기 경영 구상에 집중할 방침이다. 여기에 연휴 직후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길에 동행하는 만큼 그에 대한 준비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올해 추석 연휴에도 해외 사업장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과거에도 설과 추석 등 연휴에는 해외 사업장을 찾아 현지 사업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해 왔다.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비즈니스 미팅도 진행했다. 이 회장은 올해 설 연휴에 말레이시아 스템반 삼성SDI 생산법인을 찾아 배터리 1공장

생산 현장과 2공장 건설 현장을 둘러봤다. 또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현지 시장 반응을 살폈다. 지난해 추석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이집트 등 중동 3국을 찾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국내에서 시간을 보내며 미래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방침이다. 최 회장이 인공지능(AI) 밸류체인(가치사슬) 구축 등에 관심을 둔 만큼 미래 먹거리에 대해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지난달 21일 ‘이천포럼 2024’ 마무리 세션을 통해 “지금 확실하게 돈을 버는 것은 AI 밸류체인이며, 빅테크들도 경쟁 우위를 잡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중간에 덜컥거리는 과정이 있겠지만 AI 산업은 우상향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급변하는 대외 경영 환경에 대한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 완공되는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상황을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미국 연방 정부 당국은 최근 76억 달러(약 10조원) 규모의 현대자동차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에 대한 환경 허가를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의 전기차공장이 지역 상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제 당국이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환경보호 운동가들의 민원이 영향을 끼쳤다. 해당 공장은 이르면 올해 10월 가동 목표였지만, 환경 평가를 다시 받을 경우 계획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또 정 회장은 글로벌 시장에 불어온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의 정면 돌파를 위해 ‘2033년까지 10년간 120조원 투자’를 단행하는 미래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가족과 연휴를 보낸 뒤 경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LG전자가 하반기부터는 엑시원 3.0이 들어간 LG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는 만큼 AI와 밸류업을 위한 구상을

할 전망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서울 종로 자택에서 하반기 경영 구상을 다듬을 예정이다. 장남 김동관 부회장도 외부 일정 없이 각종 현안을 챙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회장은 연휴 기간 올해 초 수립한 회사의 사업 계획을 점검하고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은 추석 연휴 기간 개막하는 친환경 선박·에너지 전시회 ‘가스텍(Gastech) 2024’ 행사 방문차 미국 출장길에 오른다. HD현대는 가스텍 후원사다. 정 부회장은 이 행사에서 글로벌 에너지 기업 경영진과 만나 사업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4대그룹 총수들은 추석 연휴 이후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 동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준비작업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 해외 순방에 4대그룹 총수가 총출동하는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사절단은 원전 사업과 관련해 힘을 실어주고 체코 시장 진출과 관련해 다양한 비즈니스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방문 기간 양국에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TIPF)’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금융·에너지·인프라 등 경제·산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이에 상응하는 기업 차원에서의 협력 모색이 필요하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해외여행 트카 댕다

KB국민카드
0원 특가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

환전 수수료 0원 특가

해외 가맹점 이용 수수료 0원 특가

해외 ATM 이용 수수료 0원 특가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QR code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환전시 100% 환율우대상시 이벤트로 KB국민카드 영업정책 및 제휴업체의 사정으로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음

*해외 ATM 이용 시/일 2회, 월 10회 면제 전월 국내 이용 실적 없음

□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 연회비 없음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회비: 연회비/이용상품별 정상이자율 + 3%p, 최고 연 20% 이내 ※ 단, 연체발생시점에 정상이자율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가내발생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수수료를 적용 - 무이자할부 거래 연체 시: 가내발생시점의 동일한 할부기간의 유이자 할부수수료를 적용 - 그 외의 경우: 정상이자율은 상업상 상시법정 이율과 상호금융기관계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상환 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준법감시인심의필 제240708-03308-ADP(2024.7.8~2025.7)

산업부, 7년간 2744억 투자 반도체 첨단패키징 기술 개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참여 패키징 산업 협력체계 구축 협약

정부가 반도체 첨단패키징 선도기술 개발에 7년간 2744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이 반도체 첨단패키징 산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반도체 후공정 분야 최초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반도체 첨단패키징 선도 기술개발 사업(2025~2031년, 2744억원)'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하나미이크론, 한미반도체 등과 OSAT(반도체 조립, 패키징 및 테스트 공정), 소부장, 팹리스 기업들이 참여했다. OSAT, 소부장, 팹리스 기업들은 첨단패키징 기술개발에 필요한 성능평가, 기술자문 및 테스트웨이퍼 등을 칩 제조기업으로부터 제공받아 수요 기업 연계형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첨단패키징은 반도체 공정 미세화 한계와 AI(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고성능·다기능·저전력 반도체 수요증가에 따라 개별 칩들의 단일 패키지와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11일 서울 엘타워 골드홀에서 열린 '반도체 첨단패키징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MOU 체결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필요가 커지면서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첨단패키징 시장은 2022년 443억달러에서 2028년 786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취약한 첨단패키징 기술을 선점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내 기술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해외 기술 선도기관과 연계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글로벌 반도체 첨단패키징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협력을 요청한다”고 당부하고 “정부도 업계 노력에 발맞춰 반도체 후공정의 견고한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K-배터리, ESS 경쟁력 강화 美·유럽 선진시장 본격 진출

전기차 성장세 둔화... 돌파구 모색

삼성SDI 'SBB1.5' 출시 예정
LG엔솔 美 생산 인프라 확충
SK온 북미 전용공장 신설 검토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된 가운데 ESS(에너지저장장치)가 배터리의 차세대 주요 매출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는 북미와 유럽 등 선진시장을 공략해 수요를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11일 시장조사기관 BNEF에 따르면 글로벌 ESS 시장규모는 지난 2021년 110억달러에서 오는 2030년 2620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SS는 신재생과 원전 등 경직성 전원 증가에 따른 전력수급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송전선로 건설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핵심적 도구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국내 배터리 업계는 ESS 관련 기술력 강화 등을 통해 신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 시장보다는 ESS 지원 정책이 활발한 미국과 유럽을 타겟으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미국 정부는 중장기 ESS 로드맵을 구성해 오는 2030년까지 대규모 장기 ESS의 비용을 90% 감축하기로 했다. 다양한 ESS 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자하는 동시에 가정용 ESS 배터리에는 지원 자체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유럽 또한 EU(유럽연합)의 탄소 배출 감소 정책에 힘입어 ESS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유럽 시장 60% 이상을 영국과 독일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의 높은 전기료 인상 정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ESS 전력망 컨테이너 제품

현재 ESS 시장은 CATL, BYD 등 중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다. 중국 업체는 가격이 저렴한 LFP 배터리를 앞세워 세계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기차 캐즘 현상이 지속되며 최근엔 기술력 있는 한국 배터리업체들에 대한 ESS용 배터리 주문도 늘고 있는 분위기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내 배터리 업계는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삼성SDI는 현재 미국 최대 전력 기업인 넥스트에너지에 1조원 규모의 에너지 저장장치(ESS)용 배터리 납품 계약막바지에 들어갔다. 또한 이달 미국에 차세대 전력용 ESS 배터리 'SBB1.5'를 출시할 예정이다. SBB는 20피트 컨테이너 박스에 하이니켈 NCA 배터리 셀과 모듈, 랙 등을 설치한 제품으로 전력망에 연결만 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SBB1.5'는 기존 제품 대비 에너지밀도가 37%가량 향상돼 총 5.26MWh(메가와트시) 용량을

구현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4월 미국 애리조나에 7조2000억원을 투입해 ESS용 배터리 공장을 착공했다. 수요 둔화 장기화 우려로 공장 건설은 일시 중단했으나 함께 착공한 원통형 배터리 공장 건설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미국 미시간 공장 등 현지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 생산라인의 일부를 ESS 라인으로 바꿔 양산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SK온 또한 지난 2023년 3월 북미 지역 ESS 배터리 사업 확대 계획을 공유한 바 있다. 미국 현지에서 ESS 배터리 전용 공장을 신설 검토 중이다. 지난 2021년에는 SK에코플랜트, 케이디파워와 함께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친환경 ESS 구축을 위해 협력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가운데 ESS 시장 확대에 발맞춰 관련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며 "특히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ESS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韓 기업, 2분기 매출 5.3% ↑

한은 기업경영분석결과
대기업 중심 경영환경 개선 추세

올해 2분기(4~6월)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 안정성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기계·전기전자 등 수출 비중이 많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영환경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모습이다. 차입금의존도도 대기업은 감소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기존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외부감사 대상 비금융 영리법인 기업(2만3137곳)의 성장성과 수익성, 안정성은 모두 개선됐다.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 증가는

2023년 2분기 -4.3%에서 올해 2분기 5.3%로 상승했다. 올해 1분기(1.2%)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영업이익률도 6.2%로 1년전(3.6%)과 비교해 급격히 증가했다. 전분기(5.4%)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부채비율은 88.9%로 1년전(90.8%)과 비교해 소폭 낮아졌다. 올해 1분기(92.1%)와 비교해도 감소한 수준이다.

강영관 경제통계국 기업통계팀장은 "전반적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장성과 수익성, 안정성이 개선되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률이 차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주요 외신 "해리스 토론 주도... 우위 명확"

>> 1면 '해리스 vs 트럼프...'서 계속

현장에서 트럼프 발언 후 실소가 터져 나왔고 진행자는 곧바로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잡았다.

주요 외신은 해리스가 토론에서 우위를 점했던 평가를 내렸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해리스가 승리했고 접전은 아니었다"며 승패가 명확히 갈린 토론이었다고 평했다.

로이터는 "검사 출신 해리스가 초반부터 토론 주도권을 잡고 트럼프를 흔들어놨다"며 "눈에 띄게 흥분한 트럼프가 거짓으로 가득 찬 반박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전했다.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후보가 뒷에 걸려들어 패배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공화당 소속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

지 주지사는 토론 후 ABC에 "해리스는 정교하게 잘 준비돼 있었고, 뒷을 놓았다. 반면 트럼프는 말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모든 토끼를 쫓아다니며 구멍을 파고들었다"며 "이건 잘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평가했다.

공화당 전략가 랜스 트로버도 "국경과 경제에서 트럼프는 우위를 점했지만, 너무 자주 해리스의 미끼를 받아들여 패스를 줬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토론이 해리스가 완전히 승기를 잡는 계기가 되진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팽팽하고 정치적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 박빙의 승부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규훈 기자 ch9720@

JUNG KWAN JANG

제조 및 판매처: (주)한국인삼공사 |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추석에도
건강은
정관장으로



추석 맞이
사은 행사

2024.8.23~2024.9.18

가까운 정관장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기대할 필요 없는
매장직업
마음을 대신전하는
정물 배송
소중한 분께
특별포장

“한도 줄기 전에 집 사자”... 지난달 은행 주담대 8.2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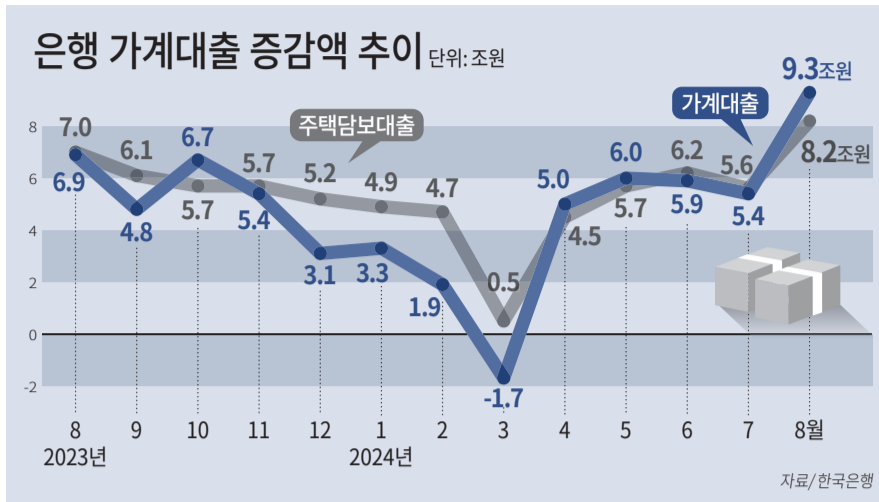
한은, 올해 8월 금융시장동향
가계대출 9.3조 급증, 주담대 88%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에 증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어나면서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8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금융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30조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9조3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지난 3월 1조7000억원 감소한 이후 증가세로 전환했다. 4월 한달간 5조원 증가한 가계대출은 ▲5월 6조원 ▲6월 5조9000억원 ▲7월 5조4000억원에서 ▲8월 9조3000억원까지 불었다. 지난 2021년 7월(9조7000억원)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 주담대, 가계대출 증가규모 88% 차지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했다.

주담대 잔액은 890조 6000억원으로 한달 새 8조2000억원 늘었다. 가계대출 증가규모의 88%를 주담대가 차지했다.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매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월 3만 9000호→6월 4만3000호→7월 4만8000호로 늘었다. 같은기간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월 1만8000호→6월 2만 3000호→7월 2만7000호로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비싼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거래량이 늘면서 주담대 증가규모가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박민철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5~6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늘어난 주택 매매 거래가 시차를 두고 대출로 이어지면서 주담대가 증가했다”며 “9월

부터 시행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전 선수요가 발생한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23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타대출은 6월 3000억원, 7월 1000억원 감소한 뒤 8월 1조1000억원 증가세로 전환했다. 여름휴가철과 지난 달 주가가 떨어지며 일시적으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비중이 늘며 기타대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

박 차장은 “스트레스 DSR 2단계 등 가계대출을 관리하려는 정부정책과 은행들의 관리노력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여기에 일시적으로 증가한 기타대출도 줄어들며 9월 가계대출 증가폭은 8월에 비해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업대출, 중소기업 중심 7.2조원 ↑
가계대출 만큼이나 기업대출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8월말 기준 1311조9000억원으로 한달새 7조2000억원 늘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증가한 기업대출 규모는 6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1~8월(56조6000억원)과 비교해 13% 증가했다.

대기업대출 잔액은 275조원으로 지난달과 비교해 1조9000억원 늘었다.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1036조9000억원으로 같은기간 5조3000억원 증가했다.

박 차장은 “대기업대출의 증가세는 둔화하는 반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일부 은행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출 영업을 지속하고, 중소기업 또한 시설자금 수요가 확대되며 기업대출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처럼 증가한 중소기업대출과 관련해 부실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8월말 기준 0.58%로 1년전(0.43%)과 비교해 0.15%포인트(p) 높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불법대부업 처벌 강화...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

당정, 불법 사금융 대책 협의회
최고금리 위반 징역 5년, 벌금 2억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인식 제고

당정은 11일 성 착취 추심과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통해 체결된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금융취약계층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

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이날 당정이 확정된 불법사금융 척결 및 제도 개선 방안은 크게 5가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대부업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해당 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

고, 불법대부 중개사이트 관리감독 강화, 불법대부에 대한 국민의 사전 인식을 제고하는 등 처벌·예방안이 들어 있다.

우선 당정은 불법대부업에 대한 처벌 강화와 범죄이득 박탈을 위해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인 징역 5년·벌금 2억원으로 형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적으로 강요된 대부계약은 원금·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

할 방침이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의 경우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의 경우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 금지 및 위반시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서예진 기자 syj@

>> 1면 ‘그레미상도 넘보는 AI...’서 계속

“저작권 윤리 문제 대두”

해의 빅테크들도 AI 음원 제작 서비스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구글은 올해 초 AI로 음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뮤직 FX’ 출시했고, 메타도 최근 음향 효과와 음악 등을 제작할 수 있는 ‘오디오 크래프트’를 선보였다.

그러나 AI창작음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AI 기술이 예술가들의 창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혜민 기자 hyem@

무제한 경기여행!
경기투어패스
경기도 인기 관광지, 체험, 액티비티,
카페 150여 곳 이용가능!!
24/48/72시간 선택하여 자유롭게 즐기자!

본공이(1234) | 투어패스 여행지를 검색하세요.
공지 성인/청소년/소인 권종에 맞게 이용바랍니다...
사용가능한 남은시간을 확인해주세요.
48:00:00
경기투어패스
[경기투어패스] 경기투어패스 통합권 / 경기투어패스 48시간
2917-1019-0219-8543
성인1/청소년2/소인1
누적액 12,552원 | 누적이용시간 122시간
이용가능한 여행지 한눈에보기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은행과 함께 성공할 CEO를 모십니다

NH농협은행의 전문컨설턴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과 함께 당신의 성공을 앞당기세요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경영전문가 | 재무전문가 | 마케팅전문가 오직 당신만을 위한 **전문 컨설팅 팀**



NH기업경영컨설팅
중소기업 대상 무료 기업경영전문컨설팅



NH소상공인(자영업자)컨설팅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무료 전문컨설팅



NH기업스마트뱅킹
앱스토어



NH기업스마트뱅킹
플레이스토어

NH농협은행 컨설팅 프로그램은 NH기업스마트뱅킹 또는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관리부서 : NH농협은행 중소기업고객부

 **NH농협은행**

지역화폐법 두고 “소비진작 효과 의문” vs “적극적 재정정책”

〈與〉

〈野〉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野 “온누리상품권 등과 다르지 않아 검증한 뒤 효과 없으면 안 하면 돼”
與 “尹 ‘맞춤형 지원’이 더 적절 일회성 지급, 소비증대 효과 안 커”
최상목, 가계부채 증가 질의 반박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경제)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가운데 다수 의석이 비어 있다. /뉴시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과,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맞섰다.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매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자체로부터 국비 보조 예산을 신청받아 이를 행안부 예산

요구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은 내수 진작을 위해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주자는 것이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1조2522억원의 국비로 20조 2000억원 규모, 2022년에 7050억원의 국비로 18조4000억원 규모로 발행됐으나,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예산이 대폭 줄어 2024년엔 2998억원 국비로 8조 8000억원 규모로 발행되고 있다.



로보락의 등장
빛자루의 종말
roborock



현재 지역화폐법은 지난 5일 야당 주도로 위원회 대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돼 이날 오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됐다. 추석을 앞두고 열리는 본회의에 지역화폐법 상정 여부를 두고 여야에 전전이 감도는 상황이다.
대정부질문 첫 주자로 나선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정정책”이라며 “발행되면 4개월 안에 안쓰면 없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국민한테 지급하는 것이 그러면, 선별적으로 하는 것도 좋으니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쓰자는 것”이라며 “온누리상품권 등과 별반 다르지 않는데 야당이 주장한다고 해서 듣지 않는 것이다. 효과가 좋으면 하고, 검증한 뒤 효과가 없으면 안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최 부총리에게 물었다.

최상목 부총리는 “내수 분야 중에 (상황이) 괜찮은 부분도 있지만, ‘온수’가 확산이 안된 곳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쪽”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 대상이 광범위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까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다음 질의자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화폐법에 대한 입장을 묻자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맞춤형 지원’이 더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며 “방법론에 대해서 전국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현금성 소비쿠폰을 주는 것은 민생

지원 차원에서 효과가 클까라는 의구심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은 생계보조가 필요하니 현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사실 빛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빛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재기를 지원하는지가 필요하고, 어떤 분은 월세 지원이 필요하고 학생은 장학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그분들이 필요한 생계보조, 월세 지원, 바우처, 장학금, 일자리 정책으로 맞춤형 지원하고 있다”며 “(지역화폐가) 소비를 증대하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 있는데, 일회성 지급은 소비 증대 효과가 크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항상소득이 늘어나야지만 소비진작 효과를 본다”고도 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현 정부 들어 가계부채가 늘어났다는 이언주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1월부터 7월까지 가계대출은 지난 2018년 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질의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언급하고, 정부의 관리가 부실했던 탓에 증가를 거듭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작년과 재작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줄었다”며 “가계부채가 늘었다는 건 어폐가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급증한 것이 아니다”라며 우수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속도에 대해서는 경계의식을 가지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국회의장〉

우원식, 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석 이후 처리 與野 협의 요청

野, 지역화폐법 등 본회의 부의했으나 우 의장 “의료대란 해소 먼저”에 무산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수사를 위한 ‘김건희 특검법’과 제3차 특별검사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오는 19일에 진행할 수 있도록 여야 협의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지역화폐법)과 함께 이들 특검법을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우 의장의 요청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 법안은 여야의 쟁점 법안이라며 당장 국민에 불안을 야기하는 의료 대란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를 불러 의정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국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는 것이다.

우원식 의장은 “지금으론 국민이 처한 비상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국회의장의 판단”이라며 “이제 비로소 여·야·의·정 간 대화 가능성이 생겼고, 환자와 국민들에 조금이나마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심사해 본회의로 회부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두 특검법에 대해 안전조정위원회(안조위)를, 지역화폐법에 대해서 공청회를 요구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안조위에선 국민의힘이 대안을 내놓지 못해 합의가 무산됐고, 공청회는 요청 자체가 없어 열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토론 과정에서 민주당이 네 번째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에 담긴 제3차 추천 방식, 야당의 비토권, 공소취소권에 반발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표결 전 퇴장했고 민주당은 세 법안을 단독 의결해 본회의로 부의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당초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세 법안을 상정해 추석 명절 전에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우 의장이 국회의 쟁점 법안인 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여야 협의를 먼저 요청한 만큼 민주당은 이에 따른 선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도현 기자 yunbgh0611@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기억합니다

62년 전 정유공장을 짓던 다짐을
우리 손으로 원유를 캐내던 열정을

기약합니다

석유제품부터 배터리까지
우리의 기술로 전세계가 움직일 날들을

대한민국에 필요한 이노베이션



QR코드를 찍고
내일의 에너지를
확인해보세요



보험업계, 저출산 시대에도 '어린이보험' 판 키운다

연령별 보장 범위 확대 등으로 '2차보험 가입' 파생효과 기대

KB손보, 금쪽같은 건강보험 건강고지 할인·가입연령 확대 미래에셋 'M-케어 0세부터' 0~30세 가입, 통지의무 없애



첫 지피티가 생성한 보험업계 어린이보험 출시 이미지.

보험업계가 어린이보험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연령별 보장 범위를 확대해 발생할 파생효과를 기대해선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KB 5.10.10 금쪽같은 건강보험'을 최근 선보였다. 기존 'KB 5.10.10 플러스 건강보험'의 핵심 특징인 건강고지 할인을 저연령까지 확대 적용했다.

금쪽같은 건강보험은 5~40세까지 가입 가능한 어른이(어른+어린이)보험이다. 가입 연령 확대에 따라 건강고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15세 미만의 건강한 고객도 건강상태에 따라 합리적인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지난 2023년 출시해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건강고지형 상품 라인업을 어린이 보험으로 확장해 이번 KB 5.10.10 금쪽같은 건강보험을 새롭게 선보이게 됐다"고 전했다.

미래에셋생명도 어린이 건강·상해 보험 라인업을 강화했다. 'M-케어 0세부터 건강보험(무)'을 출시해 전 연령대 별 건강·상해 보험 라인업을 완성하고

손해보험 중심의 어린이 건강보험 시장 공략에 나선다.

해당 상품은 0~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손해보험 상품과 달리 피보험자의 위험 변동(직업, 취미 등) 시 보험사에 바로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가 없다.

통지의무가 없으므로 가입 후에도 보험금 감액, 지급 거절 등의 불이익 없이 안심하고 보장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등 주요 질병에 대한 평생(종신) 보장을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할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보험과 친하지 않은 어린이들이 평생의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보장을 설계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지난달 6~15세 초·중학생 전용 보험상품을 선보였다. 초중학생보험은 지난 5월 출시한 영유아보험 이후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두번째로 선보이는 장기보험 상품이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생애주기별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의 성장단계에서 필수적인 보장만 직접 골라 담을 수 있는 DIY(Do It Yourself)형 상품으로 설계했다.

특히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디지털 보험에 친숙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영유아보험 및 어린이보험으로 장기보험 상품을 먼저 출시했다. 디지털 보험사로

서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앱 등을 통해 디지털에 익숙한 어린 연령대를 우선적으로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태아부터 청년기까지 넓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존 어린이 종합보험과 차별성을 갖는다"며 "자연히 카카오톡, 카카오페이를 주로 사용하고 디지털 보험에 친숙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상품을 먼저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저출생·고령화 등 적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어린이보험을 속속 선보이는 요인에 대해 업계는 파생효과를 꼽았다. 어린이보험 가입에 따라 파생되는 2차적인 보험 가입 수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전 보험보다 더 싸고 더 나은 보장들이 나오에 따라 부족한 보장을 추가하는 업셀링이나 새롭게 다시 가입하는 리모델링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대출규제에 전세값 상승 둔화... 아파트 쏠림은 여전

첫째주 서울 아파트 전세 0.15% ↑ 전주 0.17% 대비 상승폭은 축소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 무려 68주 연속으로 오른 가운데 하반기에는 어떻게 움직일 지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성수기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있지만 전세 매물은 찾아보기 힘들고, 은행의 전세대출 규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

파트 전세가격은 올해 들어 지난주까지 누적 기준 4.05% 올랐다. 전국 상승률(1.35%)을 크게 웃돈다.

주간 기준으로 9월 첫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15% 올라 상승세는 이어갔지만 전주 0.17% 대비 상승폭은 축소됐다.

여름철 비수였는데다 금융당국과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상승세가 둔화됐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전방위

적 대출 수요 규제로 매매가격은 바로 되돌려지는 모습이지만 실수요를 반영하는 전세가격은 공급물량이나 빌라 회피 등 실물 시장에서의 변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시중금리가 인상된 여파로 전세가격 역시 상승률은 둔화됐지만 빌라 기피는 여전하고, 아파트의 수요 쏠림도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아파트의 전세 물량은 줄었지만 하반기에만 입주하는 물량이 1만

3000세대가 넘는다.

당장 이달 송파구에서 '힐스테이트e 편한세상문정'(1265세대 규모)이 입주를 시작하고, 오는 11월에는 강동구 '올림픽파크프로에온'(1만2032세대)이 들어온다. 강동구의 경우 전세가격은 올해 들어 0.59% 오르는데 그쳐 서울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내년에는 동북권에서의 2만5000세대에 달하는 입주 물량이 예정되어 있다. 동대문구에서 '래미안 라그란데'와

'이문아이파크자이'가 각각 3069세대, 4321세대 규모며, 성북구의 '왕위자이 레디언트'도 2840세대가 입주를 시작한다.

박 연구원은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쏠림과 통화정책 피벗(방향전환)에 따른 수요 상승 요인과 입주물량 소화라는 공급 요인에서 가격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며 "매매 심리가 축소되면 다시 전세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 공급물량 해소 이후 공급 위축에 대한 불안감 등이 시차를 두고 전세가격에 영향을 주면서 전세가격이 강보합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WATV.ORG
하나님의교회 설립 60년 1964-2024

하나님의 교회는 국가와 사회 안보를 위해 긴급구호, 환경보호, 소외이웃 지원 등 지원 등 약 2만9000회 봉사를 이어나며 세계 각국에서 4700회 넘게 상을 받았다.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페루 국회훈장 수훈

단체부문 최고 훈격, 종교단체 최초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보내주시는 격려와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75개국 7800여 지역 하나님의 교회 370만 성도들은 온 인류를 가족으로 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희망의 내일을 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의 지역사회에 대한 탁월한 사회공헌과 자원봉사 활동을 인정하여 국회훈장 ‘코멘다도르(Comendador, 단체 최고상)’ 등급을 수여합니다.”

-알레안드로 소토 레예스 페루 국회의장 겸 훈장 심의위원장

사진설명. 하나님의 교회 총회장 김주철 목사가 7월 페루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장으로부터 훈장을 수훈했다(가운데 사진). 맨 왼쪽부터 영국 여왕 자원봉사상, 대한민국 3대 정부 대통령상, 페루 국회훈장, 브라질 입법공로훈장, 미국 바이든·트럼프·오바마 대통령 자원봉사상.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WORLD MISSION SOCIETY CHURCH OF GOD

'AI·B2B·고효율' 키워드 부각... 스마트홈 대중화 시대 제시

IFA 2024 폐막

전시회 현장 18만명 이상 방문
삼성·LG 등 주요기업 AI 가전 선보여
중, 최대규모 전시... TV분야 공세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4'가 닷새간의 여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참가 기업들은 인공지능(AI)을 탑재한 데이터 에너지 효율까지 높인 가전을 대거 선보이며 '스마트 홈' 대중화 시대를 알렸다. 올해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기업뿐 아니라 중국을 필두로 글로벌 기업들도 AI 가전을 연이어 공개하며 가전 시장의 격화된 경쟁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는 AI를 활용한 기업간거래(B2B) 솔루션 사업도 공개하며 고객 확대에 속도를 냈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이번 IFA 전시회는 '모두를 위한 혁신' (innovation for all)을 주제로 전 세계 139개국 2200여개 업체가 참가했다. 총 18만2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은 이번 행사에서는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AI와 B2B가 핵심 키워드로 부각됐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는 'AI를 통한 혁신'을 내세우며 한층 수준 높아진 제품을 선보였다.

◆기능에서 경험 중심 AI 공개 '맞춤형 스마트홈'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그동안 기능



삼성전자의 스마트싱스 체험존.



LG전자의 '씽큐 온'을 통해 사용자들의 일정을 관리해주는 모습. /뉴스시

만 강조했던 AI와 달리 경험 중심으로 발전된 기술을 선보였다. 공간별 제어는 물론 고객 맞춤형 스마트홈을 구현한 것. 스마트 홈 앱을 통해 여러 가전들의 설치 상황, 연결 상태 등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맵뷰를 공개했다.

먼저 삼성전자는 냉장고와 TV 등 AI 가전과 파트너 제품을 연결한 AI 홈 허브인 '스마트싱스'를 선보였다. '스마트싱스'는 삼성전자의 IoT 플랫폼으로 2014년 삼성전자가 인수한 후 현재 약 3억5000만명이 가입한 거대 연결 플랫폼이다. 특히 한층 진화한 AI 음성비서 '빅스비'를 자사 비스포크 AI 가전에 적용한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에어컨 26도로 맞춰주고 오후 5시까지 세탁 끝내줘"처럼 한 번에 여러가지 지시를

해도 가전제품이 각의도를 알아듣고 수행하는 것이 업그레이드된 기능이다.

한중희 부회장은 지난 7일(현지시간) 'IFA 2024' 기자간담회에서 "AI가 연결된 디바이스의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초개인화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모바일, TV, 생활가전 등 전 제품에 연결 경험을 아우를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의 올해 전시 주제는 '공감지능으로 새롭게 그려내는 AI홈'이다. LG전자는 가전업계 최초로 생성형 AI를 탑재한 AI 허브 'LG 씽큐 온'을 공개하고 씽큐 온을 중심으로 한 AI 홈을 전시했다. AI가 대화의 맥락과 환경을 파악하고, 허브를 통해 연결된 AI 가전이 이용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세심한 관리를 제공하는 모습을 알렸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출근 시간에 맞춰서 택시 호출을 해줄 뿐만 아니라 출근 시간에는 캘린더 일정을 음성 브리핑도 해준다.

결과적으로 '스마트싱스'와 '씽큐 온'을 사용하는 해당 국가 소비자들은 삼성전자 제품은 물론 LG전자 제품까지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양사는 B2B 솔루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삼성전자는 AI를 활용한 B2B 솔루션인 '스마트싱스 프로'를 통해 사업자의 운영 관리를 돕는다. LG전자는 호텔과 아파트 등에서의 관리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기업 신기술 대거 공개...중은 TV 기술력 자랑

올해 IFA는 가전업계의 양대산맥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물론 글로벌 기업들도 대거 참여했다. 특히 중국은 전시 참가국 중 가장 큰 규모로 전시장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기업인 TCL은 이동형 AI 홈 허브 로봇 '할리'를 공개했다. 하이얼도 가전기기를 원격 제어하고 연결할 수 있는 AI 기술 기반의 앱 H온을 소개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은 TV 분야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TCL은 '퀀텀닷(QD) 미니 발광다이오드(LED) TV'를 전면에 내세웠다.

독일 대표 가전 기업 밀레는 리브 없는 세탁기를 선보였다. 세탁기 통돌이에 탑재된 리브는 세제와 세탁물을 섞기 하는 필수 기능이지만 돌출되어 있어 옷감을 상하게 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밀레는 AI를 통해 드럼통을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리브를 제거했다.

고효율 가전도 이번 전시회의 핵심 키워드였다.

LG전자는 A 등급보다 약 55% 뛰어난 효율을 갖춘 드럼 세탁기는 물론 AI로 제품 사용 환경을 분석해 최적화 모드를 제공하는 '코어테크(핵심 기술력) 2.0'도 선보였다.

밀레는 신제품인 W2 노바 에디션 세탁기의 에너지 효율이 A 등급보다 20% 더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랜드포스 2024'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통합 부스 전경

/한화

한화, '랜드포스' 출격... "방산·우주 협력 강화"

(호주방산 전시회)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 참가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천무 등 소개

한화가 호주에 '종합 방산 솔루션'을 제시하며 방산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11일부터 13일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는 '랜드포스 2024'에 참가해 약 200평 규모의 통합 전시관을 마련하고 다양한 제품을 전시한다.

한화시스템은 저궤도 위성통신과 5G를 기반으로 한 초 연결 'C4I' 전술통신솔루션 등의 기술을 선보였다. 회사는 ▲ 전술5G통신체계 ▲저궤도 위성 ▲MOSS 플랫폼 등 다양한 장비로 구성된 C4I솔루션으로 미래형 전술통신체계 역량을 알릴 방침이다. C4I는 지휘(Command)·통제(Control)·통신(Co-

munication)·컴퓨터(Computer)·정보(Intelligence)를 말한다.

또 멜버른 전시장과 약 70km 떨어진 질롱시 레드백 생산공장에서 드론-차량-전시 현장 간 '실시간 영상 전송'을 시연한다. 달리는 차량에 이동형 5G 기지국을 탑재해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수신하고, 해당 영상을 다시 저궤도 위성통신을 통해 전시장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방식의 기술이다. 이는 전쟁 시 지상 통신망 단절과 관계없이 원활한 작전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체계종합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를 전시한다.

또 자체 개발한 차륜형 장갑차 '타이곤' 실물을 전시한다. 다양한 무장을 장착할 수 있고 지상은 물론 수상에서도 기동이 가능해 운용 목적에 따라 최적

화가 가능하다.

다연장로켓 '천무' 실물도 전시된다. 유도 미사일 3종과 함께 전시되는 천무는 다수의 유도 미사일로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AI 기반 원격 및 자율주행이 가능해 위험지역에 대한 수색·정찰·경계·교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무인수색차량'과 탄두를 밀어내는 장약을 원통형으로 모듈화해 목표 사거리에 따라 적정량의 화약을 장전할 수 있는 모듈화 장약(MCS) 역시 소개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K9, 레드백 수출로 쌓은 신뢰 바탕으로 파이프라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진기지로서 양국 간 방산·우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박대성 기자 ysw@

국내 최초

SK에너지, SAF 전용 생산라인 구축

코프로세싱 방식... 내달 상업 생산

SK에너지가 국내 최초로 지속가능 항공유(SAF) 전용 생산라인을 갖추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상업 생산에 나선다.

특히 SK에너지는 SAF를 연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전용 라인을 갖춘 데다 안정적으로 바이오 원료를 제공할 공급업체까지 확보함에 따라 향후 급속하게 커질 SAF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SK에너지는 국내 처음으로 코프로세싱(Co-Processing) 방식의 SAF 전용 생산라인을 갖추고 다음달부터 상업 생산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폐식용유, 동물성 지방 등 바이오 원료를 투

입해 SAF를 비롯한 저탄소 제품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SK에너지가 이번에 갖춘 코프로세싱 방식의 SAF 전용 생산라인은 기존 석유제품 생산 공정에 석유 원료와 함께 바이오 원료를 동시에 넣어 석유제품과 저탄소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바이오 원료 저장 탱크에 5km 길이의 전용 배관을 설치해 상시적으로 바이오 원료를 석유제품 생산 공정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속적인 SAF 생산이 가능하다.

이번 SAF 상업 생산이 시작되면 SK에너지는 SAF 사업 확대를 위한 원료 수급부터 생산, 판매에 이르는 밸류체인을 완성하게 된다.

/차현정 기자 hyeon@

LG전자, AI 등 기술·개발 노하우 공유

소프트웨어 개발자 콘퍼런스 성료

LG전자가 9일부터 이틀간 미국 LG 사이언스파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기술 교류와 소통을 위한 'LG 소프트웨어 개발자 콘퍼런스 2024'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LG 소프트웨어 개발자 콘퍼런스는 '함께 만들어 나가는 미래'를 주제로 ▲AI·빅데이터 ▲모빌리티·자동차 ▲플랫폼·아키텍처 등 8개 분야 기술 발표를 진행했다.

LG전자를 포함한 LG 계열사 소프트웨어 연구원들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IBM, 퀄컴, 아마존웹서비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개발자 등 2500여 명이 기술 및 개발 노하우를 공유했다.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등의 소프트웨어 개발 담당 임원들은 사업영역에서 인공지능 적용 사례를 소개하는 릴레이 기조연설을 맡아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유튜브 영상 제공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범죄행위 목인’ vs ‘표현의 자유’... 경영진, 끝없는 딜레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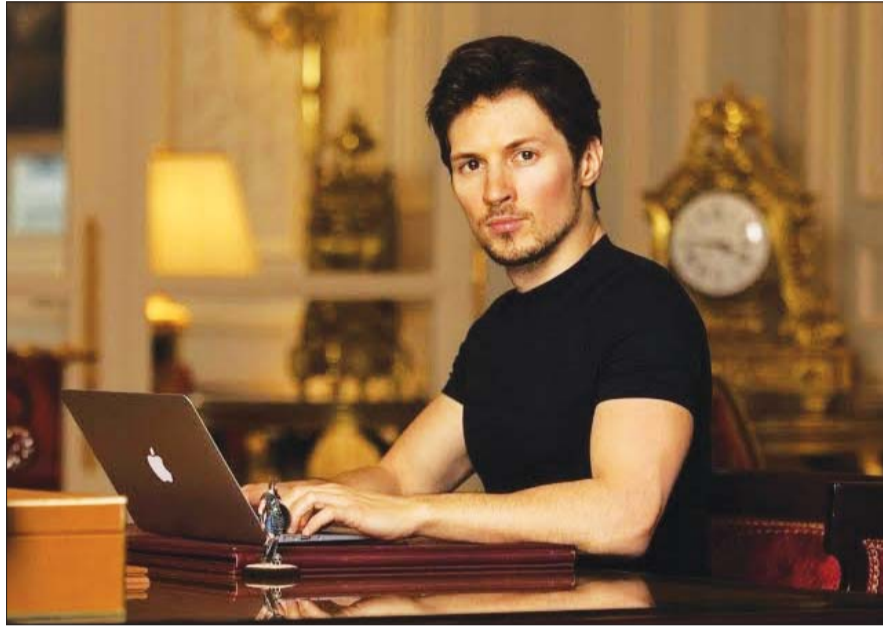
플랫폼 CEO 책임 논란

텔레그램 CEO 체포로 법적 논쟁
플랫폼 내 불법 행위 방치 ‘공범’
경영권·표현의 자유 ‘억압’ 행위
경영진 역할 재정립 필요성 제기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용자들이 각종 범죄를 일으켰을 때 플랫폼 운영자(CEO)와 경영진에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하지 아닌지 논란이 일고 있다. 플랫폼의 책임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해 기업의 경영권과 표현의 자유 등을 억압할 수 있다는 입장과 플랫폼에서 나타난 다양한 범죄 행위를 목인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경우 CEO와 기업 관계자도 범죄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려서다.

11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지난 6일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CEO인 파벨 두로프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프랑스는 나를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고소해야 한다”며 프랑스 수사기관이 자신을 체포한 사실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두로프는 지난달 프랑스 공항에서 프랑스 검찰에 체포된 후 보석금 500만 유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CEO.

/파벨 두로프 인스타그램 캡처

로(74억 원)를 내고 석방됐다. 현재는 텔레그램 내 아동 성착취물 유포와 마약 밀매, 조직적 사기 및 자금 세탁 등을 방치하고 수사당국의 정보 제공 요구에 불응함으로써 범죄에 공모했다는 혐의로 예비 기소된 상태다.

텔레그램 측은 “어떤 국가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서비스 자체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스마트폰 이전 시대의 법률로 플랫폼 내에서 제삼자가 저지른 범죄와 관련해 해당 플랫폼의 CEO를 기소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CE

O의 체포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두로프가 체포된 후 전세계적으로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를 제3자인 플랫폼 경영진에 물을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텔레그램은 그동안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명목 하에 각국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이는 정부의 검열과 사찰 또는 기밀 유출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됐지만 동시에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마약 밀매와 자금 세탁 등 각종 범죄가 모

의되는 기반이 됐다.

미국의 경우 현재로서는 플랫폼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경영진을 분리할 수 있는 통신품위법(CDA) 230조로 플랫폼 경영진을 보호하고 있다. CDA 230조는 인터넷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제한하는 핵심 조항으로, 온라인 환경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플랫폼의 운영 방식을 크게 좌우하는 법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인터넷 플랫폼이 사용자들이 게시한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플랫폼 운영자들이 과도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는다.

IT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이용자들이 어떤 불법을 저질렀을 때, 플랫폼은 이를 단속할 책임을 갖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만일 플랫폼 문제를 경영진에게 묻게 된다면 이는 경영권 침해와 함께 플랫폼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할 수 있는 만큼 문제적이라고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면에서 유사한 ‘중대재해 처벌법’의 실효성이 계속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 또한 눈여겨볼만 하다고 설

명한다. 오병한 경기대학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모호한 규정과 각 기업 간 이행 능력 차이 등 다양한 문제를 품고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 후 중대재해 사망 사고 수는 2022년 115명에서 2023년 122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최근 미국의 CDA 230조가 처한 현실과 변화하는 온라인 환경에 걸맞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CDA 230조는 최근 플랫폼을 통한 가짜뉴스와 혐오 발언의 확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브루스 데이즐리 전 트위터 유럽·중동·아프리카 담당 부사장은 영국 가디언지에 기고문을 내고 “플랫폼 상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IT 기업들을 움직이려면 경영진 개개인을 직접 겨냥해야 한다”며 “개인적 제재 위협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벌금 위협보다 경영진에게는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IT 관계자는 “경영진을 타겟으로 한 법은 경영진의 책임 회피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만드는 데에 조력할 것”이라며 “플랫폼을 통해 일어난 성착취, 마약 밀매 등 중범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SKT, ‘AI 동시통역 솔루션’ 고객 확대 속도

‘트랜스 토키’ 서비스 본격 확장
부산교통공사·영남대 등 공급 계약
영어·일본어 등 총 13개 언어 지원

SKT가 인공지능(AI) 동시 통역 솔루션 ‘트랜스 토키’ 서비스를 본격 확장한다.

SK텔레콤은 부산교통공사, 영남대학교, 신한은행과 ‘트랜스 토키’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4월 출시된 ‘트랜스 토키’는 외국인 관광객이 투명 스크린 앞에 설치된 마이크에 본인의 언어로 질문하면 한국어로 번역된 문장이 안내데스크 담당자 스크린에 표시되는 서비스다. 이후 담당자가 한국어로 답변하면 이 내용이 실시간으로 관광객 언어로 변환돼 모니터에 나타난다. 현재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스페인어 등 총 13개 언어를 지원한다.

SK텔레콤은 부산교통공사와 함께



서울시 성동구 소재 신한은행 한양대학교 지점에서 외국인이 ‘트랜스 토키’를 활용해 직원과 상담하고 있는 모습. /SKT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역에 ‘트랜스 토키’를 설치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외국인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으로 ‘트랜스 토키’를 운영한다. 관광객 이동이 많은 위치에 ‘트랜스 토키’를 설치해 역 고객 센터 방문 없이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영남대학교와도

손을 잡고 지난 7월부터 AI(인공지능) 동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영남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 방문이 잦은 ‘글로벌인재대학’, ‘유학생팀’, 학사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수업학적팀’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학생들의 호응이 높은 점을 고려해 SK텔레콤과 영남대학교는 ‘트랜스 토키’ 확대 도입을 협의 중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한화그룹, 추석 앞두고 협력사 대금 1900억 조기 지급

대금, 평소보다 최대 59일 앞당겨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 대금 약 1900억원 가량을 조기 지급하고 추석 명절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11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계열사별로 (주)한화 151억원, 한화솔루션 141억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96억원, 한화시스템 232억원, 한화오션 833억원 등 약 1900억원의 대금을 평소보다 최대 59일 앞당겨 현금으로 지급한다.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지역특산물 등을 구매해 사내 상주 협력업체 및 용역직원, 주요 고객들에게 명절 선물로 증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지역 특

산물 구매 금액만 총 51억원에 이르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산 농수산물 소비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약 55억원 구매해 임직원들에게 추석 격려금으로 지급한다. /양성운 기자 ysw@

HS효성, ‘별·나무 의미’ 담은 새 CI 선포

“세상, 더 나은 곳 이끌 것” 의지

HS효성이 ‘별’과 ‘나무’의 의미를 담은 새로운 CI와 비전을 선보인다.

HS효성은 ‘Masteria’라고 명명된 새로운 CI와 비전을 공개하며 과학, 기술 및 집단 지성의 힘을 바탕으로 인류를 풍요롭게 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11일 선언했다. Masteria는 나무(木)를 뜻하는 라틴어 ‘materia’와 별을 뜻하는 ‘aster’를 블렌딩(blending)하여 master, material 등의 중의적 의미를 담아 만든 합성어다.

새로운 CI는 ‘세상을 이끄는 별(Leading Star)’과, ‘가치 나무(Value Tree)’를 상징하는 사각별 형태와 색으로 디자인됐다. 이는 HS효성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상징으로서, 그룹 창업자들의 철학과 새롭게 출범한 HS

효성의 1기 경영진들의 비전을 결합한 디자인이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새로운 CI 공개를 맞아 “HS효성은 창업자이신 선대회장님들이 강조하셨던 ‘산업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산업입국(産業立國)의 철학과 60여 년을 이어온 효성의 역사를 계승해 나아감과 동시에, 인류를 위한 다양한 가치창출과 정도경영을 통해, 모든 Stakeholder(이해관계자)의 행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도전의 지평을 열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HS효성은 ‘새벽별’이라는 ‘효성’의 사명에 담긴 뜻을 이어받아 ‘세상을 이끄는 별(Leading Star)’의 의미가 담긴 CI를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삼성SDS “AI 소재, 웹드라마 보실래요?”

‘자, 이젠 AI작이야’ 제작해 공개

삼성SDS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소재로 한 웹드라마 ‘자, 이젠(Gen) AI(시)작이야’를 제작해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자, 이젠 AI작이야’는 종합 콘텐츠 스튜디오 플레이리스트와 공동 제작한 오피스 코미디 웹드라마다. 삼성SDS 유튜브 채널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선 공개되며, 26일부터 매주 목요일 플

레이리스트 오리지널 유튜브 채널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6부작으로 제작된 이번 웹드라마는 사무용품 회사 사별문구의 직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를 쉽고 빠르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특히 삼성SDS의 ▲생성형 AI 서비스 플랫폼 ‘패브릭스’ ▲협업 솔루션에 생성형 AI를 적용한 ‘브리티 코파일럿’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에피소드가 전개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NARA CELL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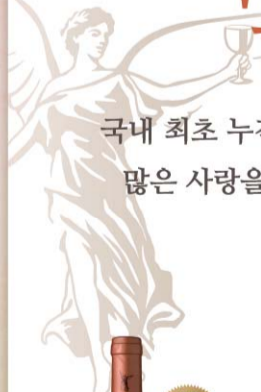
秋夕

추석에도 나라셀라와 함께 준비하세요!

나라셀라
추석
선물세트



국민 천사 와인
'몬테스'



국내 최초 누적판매 1600만병을 돌파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국민 천사 와인 '몬테스'



몬테스 알파 엠



몬테스 플리



몬테스 퍼플 앤젤

몬테스의 품질과
아르헨티나의 독창성
'카이켄'



칠레 와인의 마에스트로이자 스타 와인메이커 '아우렐리오 몬테스'가 안데스 산맥의 반대편인 아르헨티나에서 만든 와인 '카이켄'



카이켄 울트라 카베네 소비뇽



카이켄 울트라 말벡



카이켄 울트라 사도네이

❁ 판매처 ❁

WINE PICK S

- 송파점 | 02-401-3766
- 동탄점 | 031-898-6635
- 을지로점 | 02-6031-0020
- 분당정자점 | 031-712-8585
- 여의도점 | 02-3775-1875
- 이케아광명점 | 02-899-4777
- 성수점 | 02-3409-5633
- 광주봉선점 | 062-674-0985
- 청담점 | 02-514-5500
- 센텀점 | 051-747-4272
- 압구정현대점 | 02-547-8333

Naracellar Reserve

나라셀라리저브 | 02-548-3720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커져가는 국내증시 불확실성... 안정적 수익 '배당주' 눈길

코스피 지수 6% 가량 떨어질 때
코스피 고배당 50지수, 3% 하락
KT 6.86%, SKT 4.53% 증가 올라
외국인·기관도 관련 종목 순매수세
배당 테마 ETF 수익률도 양호
밸류업 지수로 관심 더 커질 듯

국내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방어할 수 있는 배당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증권업계도 하락장에 배당주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며 고배당주의 비중 확대를 추천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고배당 50지수는 이달 들어 3%가량 하락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6%가량 떨어진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다. 특히 하락장에서 대표적인 고배당주들의 강세가 이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방어할 수 있는 배당주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이미지.

어지고 있다. KT의 주가는 6.86% 올랐으며 SK텔레콤, KT&G 등도 4.53%, 1.84% 상승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들 종목을 사들이고 있다. 이달 들어 기관은 SK텔레콤과 KT를 452억원, 350억원 각각 순매

수했다. 외국인은 KT를 291억원, SK텔레콤을 13억원 매입했다.

통상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면 기술주와 성장주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경기 방어주인 배당주가 부상하는데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목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SK텔레콤, KT, KT&G 등의 배당수익률은 6.3%, 5.0%, 4.79%다.

국내 증시에서 배당을 테마로 한 ETF의 수익률도 양호한 편이다. 한화자산운용의 PLUS 고배당주 ETF의 3개월 수익률은 6.46%에 달한다. 지난달 26일엔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다. 이 상품은 유동시가총액 상위 200종목 중 예상 배당 수익률 상위 30위 이내의 고배당 종목들을 선별해 투자한다. 과거 배당 수익률이 아닌 미래 예상 배당 수익률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으로 매년 높은 수준의 배당이 기대되는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변경하고 있다.

키움투자자산운용의 KOSEF 고배당 ETF도 같은 기간 3.77%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ETF는 재무기준과 시장 유동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종

목 중 배당수익률 상위 20개 종목에 투자한다. 금융주, 통신주, KT&G, 현대엘리베이터 등이 담겼다.

이달 말 공개되는 밸류업 지수로 인해 배당주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밸류업 지수는 향후 기업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상장사로 구성된 지수로,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곳들이 편입 후보로 꼽힌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최근 금투세 논란에다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이미 놓쳤다는 ‘실기론’이 제기되면서 당분간은 변동성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런 분위기가 고배당주와 가치주에 기회 요인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말 연초까지는 밸류업 관련주들이 방어 수단이자 동시에 공격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용돈 대신 삼성전자”... 미성년 투자자 급증

미성년 주식계좌, 3년 만에 3.7배 늘어
리틀개미 선호 종목 1위 ‘삼성전자’
해외주식으로는 애플·테슬라 선호

코로나19 이후 개인투자자가 급증하면서 미성년 주식계좌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설날·추석 등 명절 용돈으로 주식을 선호하는 미성년 투자자들이 많아진 가운데, 삼성전자와 애플, 테슬라 등 우량주가 최선호 종목으로 꼽혔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96% 떨어진 6만4900원에 마감했다. 이는 52주 신저가로 장중에는 6만4200원까지 떨어졌다.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과매도 구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일 ‘검은 금요일’부터 현재까지 21.90% 떨어졌다. 김광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주가는 최근 조정기를 거치면서 역대급 저평가를 받고 있다”며 “실적 개선세를 고려하면 현재는 잃을 게 없는 주가”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몇 년째 리틀개미(미성년 개인 투자자)들의 선호 종목 1위를 지키고 있다. 국내 주식에서는 삼성전자, 해외 주식에서는 애플, 테슬라가 대표적이다. 올해 2월 리테일 강자인 키움증권이 자사 미성년 고객들의 2022년 이후 첫 종목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삼성전자와 애플, 2024년에는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ChatGPT에 의해 생성된 ‘명절 선물로 주식을 받은 미성년 투자자’ 이미지.

꼽혔다. 키움증권의 미성년 고객 수는 2019년 4만명을 넘기지 못했으나 지난해 말 기준 48만명까지 증가했다. 지난 2월 KB증권, 4월 신한투자증권에서 진행한 자사 미성년 주식 투자자 분석 자료에서도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선호도 1위를 차지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보유한 주식 계좌 수는 2019년 88만 7000개에서 2023년 상반기 325만8000개로 급증했다. 만 3년을 채우기 전에 약 3.7배가 불어난 셈이다.

지난 9일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에 출연한 개그맨 최성민은 “(자녀들이) 세뱃돈 받으면 뭐 ‘삼전 사주세요’ 그런다”고 말한 바 있다. 미성년자들의 주식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삼성증권이 지난해 초 17~19세 청소년 300명을 대상으로 ‘세뱃돈을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 예금성 자산(41%)보다 주식(58%)을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 리틀개미들 역시 해외주식을 주목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이 올해 들어 지난 3월 27일까지 미성년 고객 거래 상위 10개 종목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 계좌의 경우 해외주식 자산 비중이 20.6%로 나타났다. 전체 잔고 중 해외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7.6%임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미성년 고객의 해외주식 거래경험도 12.5%로, 전체 고객(8.7%)보다 높았다. 신한투자증권은 “미성년 고객은 성인을 포함한 전체 주식 투자자 대비 해외주식에 관심이 많고 펀드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관심이 높아져 자 신한투자증권, iM증권 등은 추석 연휴 기간에 ‘글로벌 데스크’를 운영한다고 알렸다.

유안타증권에서는 추석맞이 ‘주식 선물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한다. 상대방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만 알면 가족·지인에게 국내 주식 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 금 현물까지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수요가 늘어난 만큼 ‘주식’이 명절 선물로 부상한 모습이다. 이외에도 SK증권이 추석을 맞아 30일간 연 0%의 신용 금리인하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증권사들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godhe@

삼성전자, 52주 신저가... 목표주가 ‘줄하향’

임원진,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 방어

삼성전자 주가가 7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임원진이 자사주를 매입하며 주가 방어에 나섰다지만 역부족이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이날 종가는 6만4900원으로 전일 대비 1.96%(1300원) 하락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장중하락 6만4200원까지 하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지난 7월 11일 52주 최고가 8만8800원과 비교하면 약 27.70% 하락한 주가다.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하는 배경에는 강한 외국인 매도세가 존재했다. 지난 8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할 때 개인은 순매수세를 보였다. 외국인은 2조 8113억원어치를 순매도했고, 기관도 6856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3조 3216억원을 순매수했다.

주가부진기간이 길어지자 삼성전자 임원들은 자사주 매입에 나서며 주가 방어에 뛰어든 모습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사업부장(사장)은 지난 9일 자사주 5000주를 장내 매수했다. 취득 단가는 6만9500원으로 총 취득 금액은 3억4750만원이다. /허정원 기자 zelkova@

한종희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부회장)도 이보다 앞선 이달 3일 자사주 1만주를 평균 7만3900원(총 7억3900만원)에 사들였다.

그럼에도 증권가의 삼성전자 목표주가 하향은 계속됐다. 이달 들어 DB금융투자, 현대차증권, 메리츠증권 등이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이날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기존 12만원에서 9만6000원으로 30% 하향 조정했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 전망”이라며 “스마트폰 업체들의 메모리 반도체 보유 재고가 다시 13~14주로 증가하면서 출하량이 전 분기보다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도 삼성전자 목표가를 13만원에서 9만 5000원으로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26.92% 하향한 바 있다.

김 본부장은 “3분기 스마트폰과 PC 판매 부진으로 메모리 모듈 업체들의 재고가 12~16주로 증가하면서 하반기 메모리 출하량과 가격 상승이 기대치를 밑돌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도 기존 대비 15% 낮은 37조 9000억원으로 수정했다.

일반환전 업무 위한 외화계정 명확화

유권해석 통해 일반환전 할 경우
증권사 명의의 거주자계정 사용 가능

일반환전 업무를 위한 외화계정이 명확해지면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증권사)들이 일반환전 서비스 시행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에게 대고객(개인·기업 불문) 일반환전을 허용했다.

하지만 증권사가 기존 투자목적환전을 하는 경우에는 외화증권투자전용 외

화계정을 사용한 반면, 일반환전을 할 경우 사용할 외화계정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일반환전 업무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기재부가 지난 8월 유권해석을 통해 일반환전을 할 경우 증권사 명의의 거주자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방법을 명확히 함에 따라 업계는 일반환전 서비스 시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원관희 기자

‘삼성밀당다람쥐글로벌EMP’ 등
2년 수익률 톱3에 이름 올라

삼성자산운용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용 자산배분펀드(Balanced Fund) 18종 중에서 자사 상품이 2년 수익률 전체 1~3위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삼성밀당다람쥐글로벌EMP의 2년 수익률이 22.6%로 같은 유형 상품 중 1

위를 기록했다.

삼성EMP리얼리턴은 16.9%, 삼성평생알아서분할매매EMP는 16.2%로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본인의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특정 기간 동안 결정하지 않을 경우 금융사가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에 따라 해당 적립금을 자동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원관희 기자

복약횟수 줄이고 내성문제 해결 제약업계 '독감치료제' 개발 속도

독감 치료제 시장에서 제약업체들의 경쟁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11일 제약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서울대학교 화학부 이연 교수 연구팀과 함께 새로운 독감 치료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수입약 '타미플루'로 알려진 항바이러스제 성분 '오셀타미비르'의 내성 문제를 해결하고, 복약 횟수를 기존 10회에 1회로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대웅제약은 오셀타미비르 유사체인 '구아니딘 오셀타미비르'라는 화합물에 주목하고 있는데, '구아니딘'을 가진 구아니딘계 화합물은 전기적 인력을 통해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단백질 효소에 결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웅제약은 '구아니딘 오셀타미비르'가 내성이 생긴 바이러스와 항바이러스제의 결합 친화도가 감소하는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고, H274Y, H275Y 등 광범위한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물질은 생체이용률이 4%대로 매우 낮아, 대웅제약과 서울대 연구팀은 '프로드럭' 기술을 적용해 생체이용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화학구조를 새로 설계한 이 신규 화합물은 세계 최초이며, 서울대와 한국화학연구원 동물 실험에서는 거의 100%에 가까운 생체이용률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은 '약물 전달 시스템' 기술도 적극 활용한다. 장기지속형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결과, 복약 횟수도 획기



ChatGPT에 의해 생성된 독감관련 이미지.

대웅제약 '타미플루' 내성 해결 복약횟수 10→1회 개선 연구중
한미약품 개량신약 '한미플루' 타미플루 특허 직후 시장 공략
GC녹십자 정맥주사 '파라미플루' 15~30분 1회 투여로 독감 치료

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기존 타미플루의 경우 5일 동안 10회를 복용해야 했으나, 대웅제약이 연구하는 약물은 단 1회 복용이 가능해진다.

국내에서도 '신종 플루'로 불리며 대유행을 겪었고, 매년 유전자 일부가 변형되어 주기적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성 전염 질환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셀타미비르 성분의 독감 치료제 시장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것이 국내 제약 업계의 중론이다.

다만, 타미플루의 시장 점유율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국산 오셀타미비르 제제는 제네릭 의약품으로 출시된 데 그쳤다.

국내 제약사 중에는 한미약품이 지난 2016년 '한미플루'를 발매하게 내놓은 바 있다. 한미플루는 인플루엔자 A형과 B형에 효과가 있는 치료제로, 한미약품은 기존 '타미플루'의 염을 변경해 개량신약에 준하는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아 타미플루 물질특허가 끝난 직후 해당 시장을 공략했다.

한미약품은 한미플루 용량과 제형을 다양하게 변경해 제품군을 확장하기도 했다. 이후 유한양행의 '유한엔플루', 종근당의 '타미비아' 등이 국내 오셀타미비르 시장에서 경쟁을 이어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GC녹십자는 수액제처럼 맞는 정맥주사 제형의 독감 치료제 '페라미플루'로 독감 치료제 시장의 흐름을 바꿔 왔다. 통상 5일에 걸쳐 먹어야 하는 경구제와 달리 15~30분이 소요되는 1회 투여만으로 치료할 수 있어 각광받고 있다는 것이 GC녹십자 측의 설명이다.

이처럼 투약 편의성을 갖춘 페라미비르수화물 성분의 주사제로는 종근당의 '페라퀀스프리믹스', JW중외제약의 '플루엔페라' 등이 잇따라 등장해 독감 주사제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물류 등 美 기업 3곳, 한국에 1120억 투자

산업부, 뉴욕서 UPS 등 투자 신고식

첨단소재·물류 등 3개 기업이 우리나라에 1120억원 규모 투자를 신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이 미국 방문 기간 중인 1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개최한 UPS(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 투자 신고식을 포함해 Toray(도레이첨단소재), 반도체용 특수가스 제조업체 A사 등 총 3개 기업이 1120억원 규모 대한 투자를 확정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UPS는 1907년 설립 이후 세계 최대 화물특수기업으로 자리잡았으며, 한국에서는 인천국제공항 특송화물 처리센터를 중심으로 물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투자는 인천공항 내 화물처리 시스템을 첨단화하기 위한 것으로, 신속한 화물처리 역량 확보를 통해 국내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



망이다.

이번 미국 투자신고식에 한국에서도 같은 날 첨단산업 분야 2개 기업이 투자신고를 접수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디스플레이, 적층형세라믹콘덴서(MLCC) 등에 사용되는 첨단 소재인 폴리에스터 필름 생산시설을 증설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A사는 한국에서 반도체 제조공정 중 핵심공정인 식각, 세정 등에 사용되는 특수 가스를 생산중이며, 이번 투자를 통해 반도체 선단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 제조시설을 증설할 계획이다. 2건의 투자는 국내 첨단소재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국내 반도체 산업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시놉시스-앤시스, 기업결합 의견 청취

공정위, 경쟁 제한성 등 심사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시놉시스(Synopsys, Inc.)와 앤시스(ANSYS, Inc.)의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사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 건은 시놉시스가 앤시스 주식 100%를 취득하는 것으로, 거래 금액은 약 45조9000억원(약 350억달러)이다.

시놉시스와 앤시스는 반도체 칩 설계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자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공정위는 지난 5월 31일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심사에 착수했다.

EDA 소프트웨어는 복잡·다양한 반도체 칩 설계의 자동화를 구현한 소프트웨어로 반도체 칩 설계와 설계된 칩

의 기능적·물리적 검증에 위한 툴 일체를 포함한다.

공정위는 본건 기업결합이 반도체 칩 설계 과정에서 사용되는 DEA 소프트웨어 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방해 등을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을 면밀히 심사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AI반도체(뉴로모픽 프로세서 등), 고대역폭 메모리(High Bandwidth Memory) 등 향후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 될 첨단 반도체의 설계·생산과정에서 EDA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최근 몇 년간 관련 시장 규모도 지속 성장하는만큼 본건 기업결합이 경쟁 상황에 미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다방면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유한양행, 레이저티닙 기술료 804억 받는다

얀센에 표적항암치료제 기술 수출 '레이저티닙' 병용요법 상업화 성과 마일스톤 수령액, 연 매출의 2.5%

유한양행은 11일 얀센바이오테크에 기술수출한 EGFR(사구체여과물) 표적 항암 치료제 '레이저티닙'에 대한 상업화 기술료 6000만 달러(약 804억원)를 수령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이번 마일스톤은 유한양행의 '레이저티닙'과 얀센 바이오테크의 이중항암항체 '아미반타맙(제품명 리브레란

트)'과의 병용요법 상업화 개시와 관련된 성과에 따른 것이다.

레이저티닙은 3세대 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아미반타맙과의 병용 치료는 EGFR 돌연변이와 MET 증폭과 같은 저항성을 가진 환자들에게 특히 주목받고 있다.

유한양행은 이번 마일스톤 수령 금액인 6000만달러가 회사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1조8590억원)의 약 2.5%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마일스톤 금액은 60일 이내에 수령 예정이다.

유한양행은 이번 성과가 회사의 지속적인 글로벌 R&D 전략과 혁신적인 항암 치료제 개발의 성과를 입증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얀센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레이저티닙 병용요법의 상업화 및 추가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성과로 유한양행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세경 기자 seilee@



유튜브 영상 제공



"댐 건설, 공감대 형성 지역 우선추진"

김완섭 환경장관, 첫 기자 간담회

김완섭 환경부 장관(사진)은 11일 기후대응댐 건설과 관련해 "댐 건설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는 곳부터 먼저 기본구상 등 일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완섭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6층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단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통해 "지역주

민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소통하고 공감대 얻어가며 기후대응댐 건설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기후대응댐을 반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설을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약속 여부는 대답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다"라며 "댐 후보지를 발표할지 한달쯤 넘겨보고, 지역설명회를 하고 있다. 반대하면 (댐 건설을) 하



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댐 주변 보상금으로 얼마든지 파크골프장 만들 수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적극 협조할 것"이라면서 "일부에서는 지역경제를 위해 전국 단위 파크골프 대회를 하고 싶어 한다. 지역에 도움이 될 수도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으로 충분히 지원하고, 기획재정부와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환 기자 kdh@

현대차·기아, 신용등급 'AAA'로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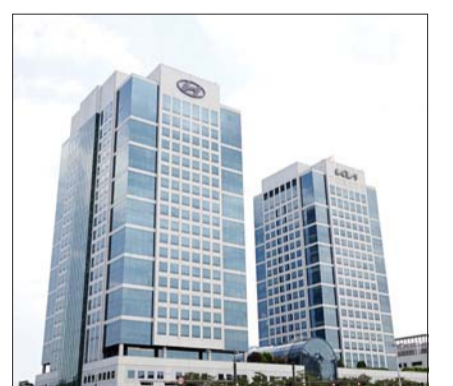
전반적 채무상환 능력 '최고수준'

현대자동차그룹 핵심 계열사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신용 등급이 연이어 상향되고 있다. 현대차·기아의 제품과 브랜드 경쟁력,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등이 높게 평가받은 것을 의미한다.

현대차그룹은 국내 3대 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가 현대차와 기아의 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최고 등급인 'AAA'로 상향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신용평가는 현대차그룹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으로 제시했다.

이번에 현대차와 기아가 받은 AAA 등급은 19개로 이뤄진 한국신용평가의 신용등급 체계상 가장 높은 등급으로 전반적인 채무 상환 능력이 최고 수준임을 의미한다.

한국신용평가는 "현대차와 기아가 국내 시장에서의 확고한 시장지위와 개선된 제품경쟁력 및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글로벌 완성차 시장 내 입



현대차그룹 양재동 본사.

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며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 다양한 시장수요에 대처 가능한 기술과 생산역량이 업계 최상위 수준이며 지속적인 투자로 시장 변화 대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AAA 등급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국신용평가는 "지속 성장 중인 이익창출 규모,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 실현, 우수한 재무안정성 유지 등도 현대차·기아의 강점"이라고 평가했다.

/양성운 기자 ysw@

(온라인여행사)

OTA 항공권 구매 소비자 피해 속출 환불불가·과다수수료 등 문제 빈번

비공식 경로 판매 항공권 피해 ↑
환불 등 항공권 구매 시 주의 필요
LCC업계, 공식홈페이지 구매 권장
소비자원 접수된 상담 사례 급증

저비용 항공사(LCC)가 항공권 판매 대리계약을 맺지 않은 곳에서 항공권을 구입하면 환불 수수료가 과다 청구 등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1일 LCC 업계에 따르면 일부 해외 온라인여행사(Online Travel Agency)를 통해 유통되는 항공권 중 항공사와 정식으로 판매 계약을 맺지 않은 주체가 임의로 항공권 알선 및 중개에 나서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에어부산 측은 항공사가 환불 불가 조건의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항공권 판매자가 자체적으로 환불 불가 조건을 걸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이에 지난 6일 에어부산은 “당사와 판매대리점 계약 중인 해외 OTA는 트립닷컴이 유일하다”며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니 해외 OTA를 통한 항공권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에어프레미아도 해외 외부 판매처에서 항공권을 구매할 때 주의하라는 공지를 냈다. 특히 무료 위탁수하물 등 항공권에 포함된 서비스 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가 많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그의 항공사들도 항공사와 무관한 간접판매 항공권 관련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아고다, 키워닷컴 등 일부 OTA를 통한 항공사와 정식 항공권 판매 계약을 맺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도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는 구조다. 소비자들이 OTA 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와 여행 일정을



김포공항 탑승장에서 여행객이 길게 줄 서 있다.

/뉴스

입력하고 비용을 지불하면, 해당 OTA에 입점한 항공권 공급업자가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손님 것처럼 항공권을 대리 예약하는 식이다.

문제는 항공사가 직접 판매하지 않은 간접판매 항공권의 경우 환불·일정 변경 등을 하기 위해선 판매를 대리한 주체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다. 이는 항공권을 대리 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매자가 자체적으로 할인이나 환불 규정을 적용해 판매하기 때문이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자사와 계약되어 있지 않은 대리점을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승객이 대리점으로부터 환불을 거절 받은 사례가 있다”면서 “해당 고객의 티켓이 환불할 수 있는 티켓이었기에 대리점 측에 환불을 진행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이례적인 뿐만 아니라, 해외 OTA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의 경우 항공권을 공급한 주체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사차·언어 등의 문제로 원활한 소통이 어려워 고

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 예약 사이트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가 항공권 일정이 변경되자 항공권 환불을 요구했으나 수개월이 지나도록 환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3년 해외 ‘서비스 구매’ 관련 7029건의 상담이 소비자원에 접수됐다. 이는 2022년 2062건 대비 41.5% 증가한 수치다. 주요 상담 상품은 OTA에서 주로 거래되는 항공권과 숙박권으로 나타났다.

항공사는 회사마다 환불 규정이 조금씩 다르다.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탑승일 기준 91일 이전 취소 수수료 없이 90일 부터는 남은 일수에 따라 취소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LCC 업계 관계자는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환급·환불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장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대성 기자 iunmids@metroseoul.co.kr

LG, ‘이동형 AI 홈 허브’ 전 세계에서 연일 호평

IFA 2024

‘코드명 Q9’ 유럽서 잇따라 호평
해의 유력 매체서 최고 제품 찬사
‘퓨론’ 탑재, 자율주행 기술로 이동

LG전자의 가전이 유럽에서 잇따라 호평을 받고 있다. 올라프 솔츠 독일 총리도 LG전자 전시관을 찾아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자사의 ‘이동형 AI 홈 허브(코드명 Q9)’가 6일부터 10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24’에서 해외 유력 매체들로부터 잇따라 최고 제품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LG 이동형 AI 홈 허브는 LG전자의 AI(인공지능) 에이전트 ‘퓨론’을 탑재, 두 다리에 달린 바퀴와 자율 주행 기술로 움직인다. 음성·음향·이미지 인식을 접목한 멀티모달 센싱 능력도 갖췄다. 수면·학습 등 아이의 생활 루틴에 맞게 조도 등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책을 읽어주거나 이야기를 창작해 들려주는 등 아이의 정서까지 고려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국 테크어드바이저는 “몇 년 전부터 유사한 로봇이 있었지만 LG전자 제

품은 놀라울 정도로 매력적”이라고 극찬했다. 또 다른 영국 매체 T3도 이 제품을 최고 제품으로 뽑았다.

앞서 올라프 솔츠 독일 총리도 IFA 2024 개막 당일인 6일(현지시간) LG전자 전시관을 찾아 이동형 AI 홈 허브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LG전자의 생활 가전에 대한 호평도 이어졌다. 미국 IT 전문 매체 ‘테크리처스’는 이번 IFA에서 처음 선보인 ‘에어로 콧’에 대해 호평하며 에디터스 초이스로 선정했다.

에어로 콧은 고양이를 키우는 고객을 위한 공기청정기다. 이 제품은 히터로 고양이가 앉는 자리를 따뜻하게 데워주며 고양이가 올라갔을 때는 쉴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 풍량을 줄이는 ‘반려묘용 청정모드’가 탑재됐다.

또 미국 리뷰 전문매체 ‘리뷰드닷컴’은 코드제로 A9X 무선청소기와 코드제로 R5 로봇청소기를 상하 직렬로 결합한 ‘LG 코드제로 올인원타워 콤비’와 오븐의 전면 도어를 노크하면 안쪽 조명이 켜져 조리 상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인스타뷰 오븐’에 대해 최고 제품으로 평가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6일부터 10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24에서 해외 유력 매체들로부터 잇따라 최고 제품으로 선정된 LG전자 ‘이동형 AI 홈 허브(코드명: Q9)’. /LG전자

세아제강지주, 영업·유통·생산 통합 나서

그룹 내 구조관 사업 재편

세아제강지주가 그룹 내 구조관 사업 통합을 통해, 구조관 사업의 시장 경쟁력 확대에 나선다.

세아제강지주는 구조관 사업 전문 유통법인 에스에스아이케이(SSIK) 및 구조관 제조법인 동아스틸을 세아제강으로 통합하는 구조관 사업 재편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금번 사업 재편은 세아제강지주의 에스에스아이케이 지분 100%를 세아제강이 약 834억 원에 인수하며, 그룹 내 개별적으로 영위해오던 구조관 사업의 제조·유통·영업 부문의 통합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최근 중국산 구조관 제품의 대량 유입으로 시장 출혈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세아제강지주는 구조관 사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 수립을 위해 작년부터 ‘구조관 사업 TF’ 조직을 신설하고 사업 시너지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왔다. 금번 세아제강으로의 구조관 사업 통합은 자체 구조관 사업 시너지 확대뿐만 아니라, 국내 구조관 업계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구조관 시장은 배관 및 에너지 방향 강관 대비 시장 진입장벽이 낮은 특성을 지니고 있어 제품의 구색 확보 및 신속한 물류,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시장이다. 세아제강지주는 금번 구조관 사업 재편을 통해 ‘중복되는 비효율 제거’, ‘물류체계 개선’을 통한 제품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판매 유통망 확보’, ‘폭넓은 강관 포트폴리오 제공’ 등 영업·마케팅 측면에서도 통합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대승적 차원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검증된 고품질의 구조관을 국내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중국산 구조관 제품의 대량 유입에 따른 건설자재 품질 이슈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세아제강지주 관계자는 “금번 사업 구조 재편은 그룹 내 분산되어 있던 구조관 사업의 통합 시너지 창출 및 운영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국내 1위 강관사인 세아제강의 높은 고객 신뢰도를 바탕으로 구조관 시장을 선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최고의 럭셔리, 우아함과 역동성이 만났다”

벤틀리, ‘더 뉴 플라잉스피어’ 출시
“韓 시장 벤틀리에 중요한 시장”

“한국 시장은 벤틀리 플라잉스피어에 있어 정말 중요한 시장입니다. 이 모델을 보시는 게 아마 세계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벤틀리모터스코리아 크리스티안 솔릭 상무는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더 뉴 플라잉스피어’를 공개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벤틀리는 11일 동대문구에 위치한 벤틀리 타워에서 하이브리드 모델 ‘더 뉴 플라잉스피어’의 실물 공개 행사를 열었다. 벤틀리의 플라잉스피어는 2005년 처음 출시된 시리즈로 19년에 걸쳐 이번 4세대 모델까지 이어지고 있다.

더 뉴 플라잉스피어의 한국 공식 판매 가격은 3억7570만원부터다. 옵션에 따라 가격은 상이하다. 4세대 모델 출시를 기념하는 한정판 ‘더 뉴 플라잉스피어 스피드 퍼스트 에디션’은 4억4190만원이다.



벤틀리모터스코리아 크리스티안 솔릭 상무가 11일 벤틀리의 차세대 하이브리드 세단 ‘더 뉴 플라잉스피어’를 소개하고 있다. /벤틀리

이번 4세대 플라잉스피어는 벤틀리 역사상 가장 강력한 투어링 세단이다.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600마력의 신형 4.0L V8 엔진과 190마력의 전기 모터 조합으로 구성됐다. 최고 출력은 782마력이며 102.05kg·m의 최대토크를 자랑한다.

EV 모드에서는 전기모터만으로 190마력, 45.8kg·m의 성능을 발휘한다. 최

고속도 140km/h까지 가속할 수 있다.

더 뉴 플라잉스피어에는 차세대 벤틀리 퍼포먼스 액티브 새시가 기본 적용된다. 벤틀리 퍼포먼스 액티브 새시에는 안티 롤 컨트롤 시스템인 벤틀리 다이나믹 라이드, 주행 상황에 따라 네 바퀴를 모두 조향하는 올 휠 스티어링과 전자제어식 리미티드 슬립 디퍼렌셜, 차세대 ESC 컨트롤 소프트웨어가 적용돼 모든 환경에서 안정적인 트랙션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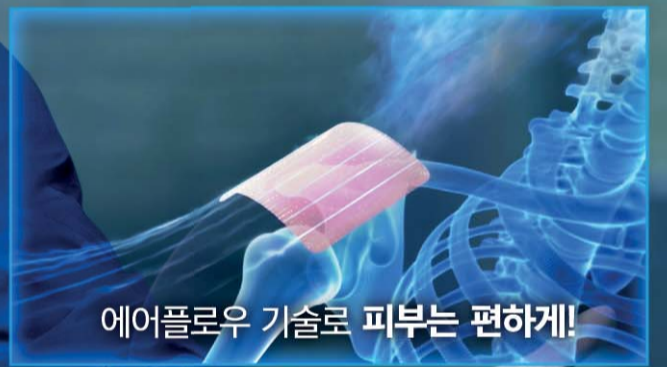
ESC 시스템은 전후 48.3:51.7의 무게 배분에 최적화된 차체 제어를 수행하며, 센터 디퍼렌셜의 능동형 토크 벡터링 기능을 통해 전후 구동축에 정확하게 동력을 배분한다.

벤틀리 측은 이번 플라잉스피어의 디자인을 두고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은 휴식을 취하는 맹수를 연상시키는 럭셔리 세단 고유의 역동적이면서도 우아한 형태를 승계한다”고 소개했다.

/박대성 기자

JEIL 제일헬스사이언스

통증엔 케펜텍으로 Tech 하세요!



케펜텍 Cool

케펜텍 HOT

케펜텍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품 설명서 참조 및 본사 마케팅부(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43 제일헬스사이언스(주) Tel. 수신자부담 080-549-0002)로 문의 바랍니다.

산업차관 “조선 기자재社 집중육성 인력부족·RG 발급 등 애로 개선”

(한급보중)

‘제21회 조선해양의 날’ 행사 조선산업 소부장 강화방안 마련 인력확보 위해 外인 활용 방안 협의 중소형사 RG발급 사항 모니터링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 지원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수퍼를 조선 기자재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나아가 조선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1차관은 1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제21회 조선해양의 날’ 행사 축사를 통해 “핵심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조선산업 소부장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해 급변 중 ‘조선산업 소부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박 차관은 축사에서 우리 조선기업들이 LNG선, 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산품 수주 등을 통해 약 200조원에 달하는 3~4년치 안정적 일감(3911만C GT, 7월말)을 확보한 것을 치하하고 “조선산업 현장의 가장 큰 어려움인 인력부족, RG(한급보중·repayment guarantee)발급 애로 등을 더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현장의 숙련인력 확보 애로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해 외국인력 활용 제도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6일 부산 사하구 선보공업을 방문해 조선 핵심 기자재 생산공정을 둘러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이와함께 중소형 조선사들의 RG발급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시 추가개선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돕기 위해, 액화수소 운반선, 자율운항선박 플랫폼 등 ‘10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지난 7월 발표한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서 조선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삼성중공업 장해기부사장이 은탑산업훈장을, HD현대중공업 전승호 부사장이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33명이 정부표창을 받았다.

장해기 부사장은 LNG 화물창 및 친환경 추진·에너지 저감 기술 적용 개발을 주도한 공적을, 전승호 부사장은 세계 최초 LNG 연료 추진 원유운반선 설계·건조 등 공적을 인정받았다.

‘조선해양의 날’은 선박수주 1000만톤을 돌파한 1997년 9월 15일을 기념해 매년 이날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2004년부터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최성안 한국조선해양플랜트 협 회장(삼성중공업 대표), 김종서 한화오션 사장, 이상철 HJ중공업 대표 등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인사 250여명이 참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농진청, 국내 개발 새로운 과일품종 출하

사과 ‘아리수’ 배 ‘원황’ 등 판매
병해충 위험 분산·선택 폭 넓혀



사과·배·포도 등의 새로운 품종이 속속 출하돼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 신품종은 병해충의 위험을 분산할뿐더러 소비자 선택의 폭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라 전망된다.

11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과일 품종이 30년 전에 비해 시장에 많이 진입해 있다. 농진청은 지난 2010년 사과 ‘아리수’를 개발했다. 2020년 이후에는 ‘이지폴’과 ‘아리원’, ‘감로’ 등도 개발해 지난해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앞서 1988년엔 국내 육성 1호 사과 ‘홍로’를 개발한 바 있다. 30년 전인 1990년대 초 추석을 앞둔 시장에서는 도입종 ‘후지’나 ‘쓰카루’가 많이 유통됐다. 두 품종 모두 추석 때가 속기가 아닌 탓에 소비자가 최상의 맛을 느끼는 데 한계가 있었다.

속기가 9월 상순인 아리수는 맛이 좋고 껍질에 색이 잘 드는 데다 탄저병에 약한 홍로를 대체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보급 10년여 만에 재배 면적이 여의도 면적(290ha)의 3배 이상인 970ha까지 늘어나며 홍로(5474ha)를 뒤쫓고 있다.

김명수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이날 세종농림축산식품부 청사에서 설명회를 갖고 “과일의 가격 변동 폭을 줄이고 생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다양한 품종이 유통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990년대(왼쪽)에 비해 2024년 기준 국내에서 육성한 사과 및 배 품종 수가 늘었다. /농진청

이어 “품종 다양화는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측면에서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배는 30년 전엔 도입종 ‘장심랑’, ‘신고’ 위주로 유통됐다. 물론 아직도 신고 점유율이 높은 편이다. 최근 들어 국내 육성 배 ‘원황’도 시장 판매대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원황 재배 면적은 지난해 기준 421ha다. 여기에 우리 배 ‘신화’ 역시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재배 면적이 늘어나 183ha까지 규모가 늘어난 상태다. 이들 국내 육성 품종 보급률은 지난해 기준 14.9%로 집계됐다.

포도의 경우, 30년 전 추석 시장에서 ‘캠벨얼리’와 ‘거봉’ 등 일부 품목만 유통됐지만 앞으로는 독특한 향, 식감, 색을 지닌 품종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 새콤달콤하고 은은한 머스켓 향이 나는 ‘홍주씨들리스’는 경북 삼주와 김천 등 포도 주산지를 중심으로 재배 면적이 증가 추세에 있다. 솜사탕 향이 나고 독특한 포도알 색을 띠는 ‘슈팅스타’도 농가 소득증대 측면에서 기대를 받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특성대학원 선정

강원대, 서울대 등 4개 대학과 ‘맞손’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오는 12일 서울 중구 엘더블유 컨벤션센터에서 강원대, 서울대, 전북대, 충북대 등 4개 대학과 제2기 야생동물 질병 특성화대학원 지정·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11일 밝혔다.

‘야생동물 질병 특성화대학원’이란 야생동물 질병 대응을 위한 현장 맞춤형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된 지원 사업이다. 제1기 사업의 경우 2021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경상국립대, 서울대, 전북대 등 3개 대학이 참여했다.

이번 제2기 사업은 지난 7월부터 공모와 심사 절차를 거쳐 4개 대학이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학교별 석·박사

과정 모집과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야생동물 유래 인수공통감염병 등 교과 과정을 개설한다. 교재개발 및 현장실습 등을 통해 야생동물 질병에 대응하는 전문인력의 저변을 확대할 예정이다.

석·박사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은 전문교과목 이수 외에도 관련 논문 발표, 전국야생동물구조센터와 연계한 실습 훈련 등을 통해 야생동물 질병 전문가의 역량을 갖추게 된다. 4개 대학은 3년의 사업기간 동안 총 5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2기 특성화대학원 운영을 통해 관련 전문인력을 꾸준히 양성해 통합적 관점의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2030년까지 광역버스 25% 수소버스로 보급

환경부 ‘수소버스 보급활성화 설명회’ 경기도·인천 광역버스 관계자 대상

정부가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에 수소버스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2030년까지 전체 광역버스의 25%를 수소버스로 보급하는 것이 목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수소버스 보급활성화를 위한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광역버스 노선 업무 담당자와 해당 지역 내 광역버스 운수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수소버스에 대한 업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보급 고상 수소버스. /환경부

환경부의 수소버스 보급계획 및 지원 현황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대 광위의 광역버스 대상 수소버스 전환 계획 ▲현대자동차와 하이엑시움모터스의 수소버스 제원 ▲SK E&S와 코하이젠의 수소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이 소개된다. 수소버스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

지 않는 무공해차로 같은 무공해차인 전기버스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시간이 짧아 상대적으로 주행거리가 긴 광역버스 노선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연기관 버스가 승용차에 비해 연간 약 30배의 온실가스와 약 43배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만큼, 광역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경우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정부는 확고한 탄소중립 노력과 함께 수소차 생태계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수도권 수소 광역버스 보급 활성화를 위해 모두가 함께 역량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전도 위험 가구’ 등 54개 제품 리콜명령

국표원, 916개 제품 안전성 조사

전도 위험이 있는 가구, 유해물질이 검출된 쌍꺼풀용 테이프 등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 54개의 시중 유통이 차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전지, 전동킥보드, 가구 등 73개

품목, 91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4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리콜명령 처분을 받은 54개 제품 중 어린이제품이 26개로 가장 많았고, 전기용품(14개), 생활용품(14개) 등이다. 특히, 안전기준 부적합률은 가구

(40%), 쌍꺼풀용 테이프(33%), 어린이용 장신구(27%), 전지(13%) 순으로 올해 상반기 평균 부적합률인 6.1% 대비 높은 수준이어서 구매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명령한 54개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 정보센터’,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여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기대, 직업훈련 혁신 우수사례 6점 선정

패러다임 변화 주도 사례 발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직업훈련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할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진행한 ‘2024년도 직업훈련 혁신 우수사례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훈련기관 혁신 분야 12점 ▲훈련과정 혁신 분야 11점 등 총 23점이 접수됐다. 직업훈련 및 예

듀테크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총 최우수상 2점, 우수상 1점, 장려상 3점 등 총 6점(기관혁신 2점, 과정혁신 4점)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글로벌산업기술교육원(과정혁신 분야)은 자체 과정개발 모델인 ‘ARTIO’ 적용을 통해 뿌리산업 훈련과정에 첫 지피티, 가상현실 등 에듀테크를 접목해 훈련 효과성을 높였다. /김대환 기자

3고에 채용시장 위축... 유통가 '청년 일자리' 창출 앞장

BGF리테일 하반기 신입공채 모집 영업관리 등 4개직군 19일까지 접수

GS리테일 23일까지 신입사원 채용 GS25·GS샵서 두자릿 수 규모

오리온 22일까지 인턴십 지원 접수 **삼양라운드스퀘어** 해외인턴 속도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장기화 영향이 채용시장으로 번지면서 특히 청년들이 취업난을 겪자 유통업체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10일 인크루트가 80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하반기 업종별 신입 채용계획' 조사에 따르면 총 17개 업종 중 채용계획 비율이 전년보다 상승한 업종은 4개에 불과했다.

이에 유통업체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ESG 경영의 일환으로 보고, 미래 기업 가치 상승을 위한 실천 가운데 인재 육성도 포함된다며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는 유통업체 중에 편의점 업체들이 가장 적극적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모집에 나섰다. 오는 19일까지 모집하는 하반기 신입사원 공



BGF리테일은 온·오프라인 채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BGF리테일



오리온은 채용 연계형 인턴십을 모집한다. /오리온

채용 모집 대상은 4년제 대학교 기졸업자 및 졸업예정자(2025년 2월)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지닌 인원도 지원할 수 있다.

BGF리테일은 이번 채용에서 ▲영업 관리 ▲상품(MD) ▲전문(물류, IT) ▲경영지원(HR) 4개 직군을 대상으로 총 00명을 선발한다. 채용은 서류 전형 ▲AI 역량 검사 ▲1차 면접 ▲2차 면접 ▲현장 실습 평가 ▲최종 입사 순으로 진행된다. 현장 실습은 오는 11월에 약 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BGF리테일은 이번 공채 모집 시즌에 지원자들이 채용 궁금증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채용 설명회

를 개최한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BGF리테일은 대내외적인 경제 변수에도 불구하고 인턴 및 신입사원을 1년에 4회 채용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끊임없이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GS리테일은 오는 23일까지 편의점 GS25, 홈쇼핑 GS샵 총 2개 사업부에서 각각 두 자릿 수 규모의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편의점 사업부는 ▲영업 관리 직무 담당자(OFC) 1개 직군, 홈쇼핑 사업부는 ▲상품기획(MD) ▲PD ▲물류 기획 ▲대외협력 등 4개 직군에서 지원자를 모집한다.

편의점 사업부의 경우 상반기에 이어

이번 하반기 채용에서도 일반 전형과 함께 지방 주요 거점 대학에서 캠퍼스 리쿠르팅(현장면접) 전형을 운영하며 지역 인재 발굴에 나선다. ▲강원도 ▲제주도 ▲충청북도 내 대학캠퍼스에서 1차 면접을 진행하고, 최종 선발된 인력은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게 된다.

오는 19일에는 예비 지원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GS리테일 주요 사업장을 견학하는 '인사이드GS리테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회사와 유통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채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라는 점이 눈에 띈다.

종합식품제조업체 오리온도 인턴십 접수를 통해 청년 일자리 모집을 시작한다. 오리온은 오는 22일까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 접수를 시작한다.

모집 대상은 2025년 2월 4년제 정규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기 졸업자이며, 모집 부문 및 인원은 일반관리, R&D, IT, AGRO 등 00명이다. 서류전형, 온라인 인적성검사, 면접전형, 채용검진을 통해 선발하며, 인턴십 프로그램 후 진행되는 최종면접 결과에 따라 정규직 입사의 기회가 제공된다.

오리온은 지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직무 소개, 복리후생, FAQ 등의 채용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있다.

삼양라운드스퀘어는 해외 인턴 채용에 속도를 낸다. 오는 30일까지 삼양라운드스퀘어 공식 채용 홈페이지에서 원서 접수 후 서류 전형, 실무진 면접, 임원 면접 순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한다. 모집 분야는 ▲영업 ▲영업지원 ▲마케팅 ▲품질 ▲SCM ▲R&D ▲인사·총무 ▲재무·자금관리 ▲사업관리 등 삼양식품, 삼양로지스틱스, 삼양애니 등의 9개 직군이며, 모집 인원은 00명이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CJ제일제당 '제일맛게컬리' 신제품 선봬

컬리와 파트너십 강화 마켓컬리 단독판매... 10% 할인 혜택

CJ제일제당이 컬리와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한다.

CJ제일제당은 협업 프로젝트 '제일맛게컬리'를 통해 기획한 전용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신제품은 '육즙+왕교자(육즙플러스왕교자)'와 '츄러스 시나몬맛·콘소메맛'의 3종(사진)으로, 올해 1월 맺은 '동반성장을 위한 공동상품 개발 JBP(조인트 비즈니스 플랜)'의 일환이다.



'제일맛게컬리'는 CJ제일제당의 식품 제조 역량과 컬리의 큐레이션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꼭 맞는 제품을 제안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육즙+왕교자'는 기존 왕교자의 장점인 만두소의 짭짤한 식감과 고기 함량을 늘려 육즙이 더욱 풍부해진 것이 특징이다. 또한, 만두피에 쌀가루를 더해 찜찜

하고 구우면 바삭하게 즐길 수 있다.

별 모양 틀로 짜낸 '츄러스'는 겉은 바삭하고 CJ제일제당이 개발한 전용 프리믹스를 사용해 속은 쫄깃한 식감을 구현했다. 에어프라이어로 약 7분이면 간편하게 완성되며, 오리진 츄러스 맛인 시나몬과 달콤짭조름한 콘소메 등 두 가지 맛으로 출시해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다.

'제일맛게컬리' 신제품들은 마켓컬리에서 단독 판매되며, 출시를 기념해 제품 구매 시 10% 할인 혜택 제공 등 다양한 소비자 프로모션도 진행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홈플러스, 추석맞이 'AI 가격혁명' 행사

계란·햄살 등 25일까지 할인행사

홈플러스가 본격적인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는 12일부터 'AI 가격혁명', '고기 유니버스' 등 다채로운 할인 행사를 전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 음식 수요는 물론 연휴기간 가족 나들이까지 겨냥해 상품을 마련했다.

먼저,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배 더 강력해진 AI 가격혁명' 행사에서는 연휴기간 수요가 증가하는 상품들을 AI를 통해 엄선해 업계 최저가로 선보인다 ▲'CJ무항생제 1등급 깨끗한 계란(25구)'은 12~18일까지 7890원에 판매하고, '올해 첫 수확한 고품 햄살(10kg)'은 2만9900원에, '14brix 제스프리 골드키위(7~10입)'는 7490원에, '팽이



모델이 11일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강서점에서 '2배 더 강력해진 AI 가격혁명', '고기 유니버스' 주요 행사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홈플러스

버섯(4입/1인2봉 한정)'은 1790원에, '부드러운 2.5mm 백진미 오징어채(200g)'는 6990원에, 전 요리에 필수품인 '질풀리는 집 키친타월(150매×6롤)'은 4990원에 마련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G마켓, 18일까지 '풍성한 한가위' 프로모션

유니버스 클럽 15% 쿠폰 매일 지급

신세계그룹 계열 e커머스업체 G마켓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까지 'G마켓과 함께하는 풍성한 한가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명절 연휴 중 이용 가능한 당일배송 상품을 소개하고, 할인쿠폰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 '스마일프레시'는 17일 추석 당일 하루와 18일 새벽배송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한다. 이마트몰 신선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인기 상품을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 배송한다.

할인쿠폰도 선보인다. 멤버십 회원인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전용 혜택으로, 최대 3000원까지 할인되는 '15% 할

인쿠폰'을 ID당 매일 1회 지급한다.

'홈플러스 당일배송관' 상품도 추천한다.

추석 당일(17일)을 제외하고, 주소지와 가까운 지점에서 당일에 배송되며, 배송시간 선택도 가능하다. 멤버십 회원에게는 1000원 이상 구매 시 최대 3000원 할인되는 '15% 할인쿠폰'을 ID당 하루 1회 제공한다.

익일함배송 서비스 '스마일배송'은 12일까지 마감 세일을 진행한다. 미처 사전에 명절 선물을 준비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인기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할인 판매한다. 상온 상품의 경우 12일 오후 8시까지, 저온 상품의 경우 12일 오후 6시까지 주문 시 명절 연휴 전에 상품을 받을 수 있다.

/최빛나 기자

롯데면세점-신한은행 SOL트래블 체크카드 9% 할인 등 제휴혜택

롯데면세점이 오는 추석과 10월 첫째 주 황금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준비 중인 내국인 고객을 위해 신한은행과 손잡고 단독으로 트래블 체크카드 제휴 혜택을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오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롯데면세점×SOL트래블 체크카드 트래블 꿀패키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한 SOL트래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는 롯데면세점 GOLD 등급 멤버십 업그레이드 혜택 및 9% 할인 제휴포인트를 제공한다. 또한, 오프라인 시내점에서 30달러 이상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PRE-LDF PAY 1만원을 지급하며, 롯데 모바일 교환권 1만원을 매일 선착순 증정한다.

/최빛나 기자

'빼빼로데이' 홍보... 글로벌 리포터 모집

롯데월드, 총 11명에 항공권 등 지원

롯데월드프드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빼빼로데이'를 알리기 위해 글로벌 크리에이터 활용을 강화한다.

롯데월드프드는 한국의 빼빼로데이 문화를 전세계에 알리기 위한 글로벌 리포터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발탁된 리포터들은 한국에서 빼빼로데이 문화를 체험하고, 이를 SNS콘텐츠로 제작해 전 세계에 홍보할 예정이다.

전체 11명인 빼빼로 글로벌 리포터에게는 왕복항공권, 3박 4일 숙소 지원, 환영 선물 및 빼빼로 제품 증정, 네트워크 파티 등이 제공된다. 한국에 있는 동

안 글로벌 리포터들은 빼빼로데이와 관련된 공통 미션 및 팀 미션을 부여 받고 서울 주요 장소를 방문해 콘텐츠를 촬영 제작할 예정이다. 총 3개팀으로 나누어 활동하며 우수 리포터와 우수팀을 선발해 시상한다.

이번 빼빼로 글로벌 리포터는 특히 대형 유튜브 토퍼길드(Topper Guild)가 함께해 눈길을 끈다. 토퍼길드는 구독자 4240만명을 보유하고 DIY와 기발한 콘셉트의 콘텐츠 제작 등으로 유명한 미국의 크리에이터다. 토퍼길드는 대표 K-기념일인 빼빼로데이를 소재로 한 기발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 이를 미국 현지에 알릴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외국인도 친숙하게”... 패션업계, 연예인 마케팅 재가동

K-패션 찾는 외국인 비중 증가
직원 위주에서 유명인 중심 전환

신세계인터내셔널 ‘어그’
뉴진스 하니 브랜드 화보 공개
하고하우스 ‘오아이오아이’
배우 고민시 홍보모델 발탁



뉴진스 하니와 어그가 함께한 2024년도 가을 겨울 캠페인 화보 사진 /신세계인터내셔널



오아이오아이 컬렉션의 2024 가을 시즌 상품군 모델 착용 사진 /오아이오아이 컬렉션

패션업계의 마케팅 흐름이 또 다시 바뀌고 있다. 제품 홍보에 자사 직원을 전면으로 내세우는 ‘임플로이어서(직원+임플루언서)’ 마케팅에 집중하다가 최근에는 자사 브랜드와 어울리는 연예인이나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들을 중심으로 홍보를 이어가는 고전적인 마케팅 전략을 다시 펼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2024년 가을 겨울 시즌 신상품 출시를 앞두고 패션업체들이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를 홍보 모델로 내세우는 등 과거 유명인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다시 펼치고 있다.

실제로, 한세엠케이의 데님 브랜드 ‘버커루’는 이번 2024년 가을 겨울 시즌 신규 제품군 출시에 이동휘를 전속 광고 모델로 발탁했다. 가을 신규 상품군 출시에 맞춰 배우 이동휘와 함께 캠페인 화보 촬영을 진행해 선보인 것.

신세계인터내셔널의 라이프스타일

신발 브랜드 ‘어그’ 역시 이번 가을 겨울 신제품 출시에 맞춰 뉴진스 하니와 함께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하며 관련 화보 사진들을 공개했다.

하고하우스의 캐주얼 브랜드 ‘오아이오아이’는 이번 가을 겨울 시즌 신상품 홍보 모델로 배우 고민시를, 이랜드의 뉴발란스는 이번 신상품 공개와 함께 브랜드 모델인 아이유 화보를 함께 공개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유명인 중심의 마케팅을 매출 성장의 핵심 견인 요소로

봤다. 신세계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올해 어그의 봄여름 시즌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0% 신장했다”며 “특히 샌들, 슬리퍼 등 하나가 신은 대부분의 컬렉션이 완판되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어그와 하니의 만남이 브랜드 주 고객층인 2030세대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캐주얼 브랜드 오아이오아이 관계자 역시 “감각적이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브랜드 헤리티지를 보다 탄탄하게

구축하고자 배우 고민시를 모델로 발탁했다”며 “긍정적이면서도 트렌디한 매력으로 2030대 여성의 워너비로 떠오르고 있는 배우 고민시가 오아이오아이 컬렉션만의 컨템포러리 캐주얼 이미지와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다시 유명인 중심의 고전적인 마케팅 기법이 활성화된 배경에는 K패션을 찾는 외국인 비율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K패션을 찾는 외국인 비중은 갈수록 늘고 있다. 일례로 무신사 스탠다드는 지난 6월 무신사 스탠다드 명동점의 글로벌 고객 매출 비중이 45%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무신사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진행했던 ‘2024년 K-관광 로드쇼’에 참석해 대만에서의 K패션의 성장 가능성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명인 중심의 브랜드 마케팅은 확실히 매출 성장에 효과적”이라며 “드라마, 연예인 등 K컬처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이 K패션도 찾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친숙하고 제품 브랜드와도 잘 어울리는 유명인을 제품 브랜드 모델로 발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포르테포르테 갤러리 본점 매장 사진 /LF

LF ‘포르테포르테’ 오픈

생활문화기업 LF의 이탈리아 디자이너 브랜드 ‘포르테포르테’가 국내 첫 단독 매장을 선보인다.

LF의 포르테포르테가 갤러리 백화점 본점에 국내 첫 번째 단독 매장을 오픈했다고 11일 밝혔다.

포르테포르테는 지난 2002년 이탈리아 베네토 출신의 지아다 포르테와 파올로 포르테 남매가 만든 수제 티셔츠 컬렉션에서 시작된 브랜드다.

이번 포르테포르테 매장은 서울 강남구 갤러리 백화점 본점 웨스트 3층에 자리했다. 약 17평의 이번 매장은 일본 도쿄에 이은 아시아 두 번째 매장이자 전 세계 11번째 매장이다.

/안재선 기자

셀트리온, ‘램시마SC’ 호주시장 점유율 20% 돌파

맞춤형 영업성과... 처방 가속화
‘베그젤마’ 등 포트폴리오 확대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호주에서 실질적인 처방 성과를 거두고 있다.

11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세계 유일 인플릭시맙 피하주사(SC) 제형 치료제 ‘램시마SC’는 올해 1분기 호주 인플릭시맙 시장에서 점유율 20%대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이는 지난 2021년 출시 첫 해 1%에 불과했던 점유율이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한 결과다.

특히 셀트리온은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호주 내에서 의료 시설 및 인력 부



램시마SC /셀트리온

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직접 투약할 수 있다는 램시마SC의 차별점이 수요 급증으로 이어지며 처방이 가속화됐다고 설명한다.

또 셀트리온은 호주에서 램시마SC 배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넓은 국토 면적으로 인해 병원까지 이동 거리가 길게 형성된 호주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항암제 분야에서도 셀트리온 제품의 처방 확대는 이어졌다. 유방암, 위암 치료제 ‘허쥬마’는 올해 1분기 호주 트라스투주맙 시장에서 47%의 점유율을 기록했는데, 지난 2021년 4분기 해당 시장에서 처음으로 점유율 1위에 오른 후 2년 넘게 선두 자리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것이다.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의 경우, 리툭시맙 성분 치료제 시장에서 점유

율 18%로 상위권을 기록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셀트리온은 호주에서 항암제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하반기 전이성 직결장암, 유방암 치료용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 출시를 앞두고 있다.

셀트리온은 향후에도 호주 시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영업 전략이 처방 성과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대부분 영업 방식으로 의약품이 공급되는 만큼, 주요 이해관계자와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호주 의료진의 처방 선호도를 꾸준히 높여왔다는 것이 셀트리온 측의 설명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에스티젠바이오, ‘DMB-3115’ 본격 생산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송도생산시설 EMA GMP 실사 통과

동아쏘시오홀딩스의 자회사 에스티젠바이오가 고품질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는 제조시설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에스티젠바이오는 인천 송도에 위치한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이 유럽의약품청(EMA)가 진행한 우수 의약품 품질관리기준(GMP) 실사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동아에스티와 메이지세이카파마가 공동개발하고 있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DMB-3115’의 유럽 허가 신청이 지난 2023년 7월 완료되면서,

제품 생산을 담당하는 에스티젠바이오는 올해 7월 EMA로부터 제조시설에 대한 실사를 받았다.

이번 실사 통과로 송도바이오공장의 원료의약품(DS), 무균주사제(PFS) 제조시설 모두 EU-GMP 인증을 획득하게 됐고, 에스티젠바이오는 올해 하반기부터 ‘DMB-3115’ 상업화 생산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다.

에스티젠바이오는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주요 시장 진출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글로벌 트랙 레코드를 확보해 매출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강스템 GMP센터, 세포처리시설 허가 취득

첨단재생의료사업 돌입

강스템바이오텍은 최근 식약처로부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생법)에 따른 GMP센터의 첨단재생의료 세포처리시설(이하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취득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사측은 금번 허가는 2025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인 첨생법 개정안에 따른 국내 첨단재생의료사업 돌입을 위한 과정이라고 전했다.

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의 신체 구조나 기능을 재생, 회복 또는 형성하거나 질병을 치료·예방하기 위해 인체세포

등을 이용해 실시하는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을 말한다.

중증 아토피 피부염은 첨생법상 난치 질환에 해당하여 강스템바이오텍은 아토피 치료제 퓨어스텝-에이디주를 재생의료에 활용한다. 이를 위해 회사는 GMP센터의 제조 및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강화했으며, 세포처리시설이 허가됨에 따라 첨단재생의료기관에 퓨어스텝-에이디주를 공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다수의 재생의료기관으로부터 문의가 들어와 임상연구 등에 대한 활발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아모레퍼시픽 ‘더 어울림’ 부수 운영

아모레퍼시픽이 뷰티 브랜드와 신기술을 접목해 K뷰티 가치를 높이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신기술융합콘텐츠 글로벌 페스티벌 ‘더 어울림’에서 아모레퍼시픽 주요 브랜드와 메타버스 신기술을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더 어울림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 신기술 콘텐츠를 글로벌 소비자 및 기업, 바이어 등에게 선보이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뉴뷰티스퀘어’라는 주제로 부수를 운영해 해외 현지 고객들에게 설화수, 라네즈, 이니스프리 등을 소개한다. 브랜드 대표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QR코드를 활용한 샘플 증정 이벤트 참여도 가능하다.

/이청하 기자

LG생활건강 ‘립세린’ 아마존 판매 1위

LG생활건강이 북미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에서 제품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11일 LG생활건강에 따르면, 더마화장품 브랜드 CNP ‘립세린’은 아마존에서 14주 연속 ‘립버터 부문’ 판매 1위를 차지했다.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말까지 하루 평균 620개씩 팔리면서 립세린 누적 판매량은 6만2600여 개에 이르는 것이 LG생활건강 측의 설명이다.

립세린은 립밤과 립마스크의 장점만 살린 새로운 유형의 제품으로, 입술 피부의 각질, 주름, 보습, 탄력, 윤기 등을 개선하는 기능을 갖췄다. 위생과 편의성을 높인 독특한 용기도 특징이다.

/이청하 기자

이동의 한 순간 · 물류의 매 흐름 AI시대의 FLOW전략

2024 물류 & 모빌리티 포럼

2024.9.25(수) 오후2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 | |
|--|--|
| ◎ 행사명 : 2024 물류 & 모빌리티 포럼 | ◎ 주제 : 이동의 한 순간 · 물류의 매 흐름, AI시대의 FLOW전략 |
| ◎ 일시 : 2024년 9월 25일(수) 14~17시 | ◎ 장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 등록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당일 카드결제 가능) |
| ◎ 문의 : 2024 물류 & 모빌리티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



롯데칠성음료-롯데의료재단, ESG 업무협약 체결
롯데칠성음료는 전날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보바스어린이 의원에서 롯데의료재단과 함께 보바스어린이재활센터 건립 및 운영 기금 모금을 위한 ESG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윤연중 롯데의료재단 보바스어린이의원장(왼쪽)과 서인환 롯데칠성음료 국내영업1본부장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SKT 'AI 결자해지' 캠페인 영상 공개

SK텔레콤은 자사의 인공지능(AI) 철학과 방향성을 담은 디지털 캠페인 영상 2종(예이크리드·단편영화)을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디지털 캠페인의 주제는 AI 결자해지(結者解之)다. AI 기술로 발생한 문제를 AI 활용을 통해 해결한다는 취지로, 이번 캠페인 콘텐츠에선 '도파민 중독'을 소재로 이야기를 풀어낸다. SK텔레콤은 도파민 중독의 심각성과 올바른 AI 사용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영화를 제작하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 해당 콘텐츠들은 SK텔레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이혜민 기자 hyem@



롯데물산, '전통시장 화재 안전 지킴이' 활동
롯데물산이 지난달 27일 임직원 재능 기부를 통해 '전통시장 화재 안전 지킴이' 활동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추석 명절을 대비해 전통 시장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추상식 방이시장협동조합 이사장(가운데) 등 임직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물산



에어부산, 'ESG DAY' 행사... 직원 참여 독려
에어부산은 10일 부산 강서구 소재의 사옥 대강당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로 2회째를 맞게 된 '에어부산 ESG DAY' 행사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강화와 ESG 경영의 성숙·발전 도모에 기여한 공로로 에어부산 캐빈 승무원 봉사 동아리인 '블루엔젤' 팀과 운항·정비 등 직군별 직원 4명에게 각각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에어부산

대교협, 이경희 사무총장 취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제15대 사무총장으로 이경희 경기도교육청 전제1부교육감(사진)이 취임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교협은 지난달 13일 이사회를 열고, 사무총장 전임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서류 및 면접심사와 직접 비밀투표방식으로 제15대 사무총장을 선출했다. 이 신임 사무총장은 교육부 장관의 승인과 대교협 회장(박상규 중앙대 총장) 임명을 거쳐 지난 10일 공식 취임했으며, 임기는 2027년 9월 9일까지 3년이다. /이현진 기자 ihj@



추석맞이 나눔 실천
금감원·금융권, 20여개 사회복지단체 9000만원 기부

금천구 별빛남문시장 방문 "상생 금융 실천 앞장 설 것"

금융감독원은 한국 구세군과 IBK기업은행·한국투자증권·KB손해보험·신한카드 등 4개 금융사와 함께 서울 금천구 소재 별빛남문시장을 방문해 나눔 활동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매년 추석 금융사와 공동으로 전통시장 나눔 활동을 하고 있다. 금감원과 4개 금융사는 공동으로 마련한 후원금 9000만원으로 쌀, 과일 등 생필품과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고 약 20여개 사회복지단체에 기부



(왼쪽부터) 박종환 구세군 커뮤니케이션부 부장,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이사,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민복기 별빛남문시장 상인회장, 김병운 구세군 서기장관, 오은선 IBK기업은행 부행장, 문동권 신한카드 대표이사, 채영현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 팀장. /금융감독원

했다. 이날 별빛남문시장에서 생필품을 직접 구매하고 상인들의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한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의 좋은 상품을 어려

운 이웃들과 나눌 수 있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하며, 시장 상인과 이웃들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회사 대표들은 "이번 나눔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에 활력이 생

기고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소상공인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상생금융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LH, 10억 상당 후원물품 지원 **KB국민銀,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

노인복지관·보육원 등 전달

한국도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입주민과 사회적약자 등에 풍성하고 따뜻한 한가위를 선물하고자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10억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과 사회적약자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력을 부여하려는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추진됐다. LH는 임대주택 입주민을 비롯해 노인복지관, 보육원, 그룹홈 등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시설에 약 10억원 상당의 신선식품, 생필품 등을 지원했다. 조경숙 LH 경영관리본부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풍성



지난 9일 진주 한 그룹홈 가정에서 LH 임직원 및 관계자들이 후원물품 전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H

하고 넉넉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약자 지원과 더불어 지역 사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14년간 126억 규모 식료품 구입

KB국민은행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외이웃과의 상생실천을 전하기 위한 2024 추석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는 명절을 맞이해 KB국민은행의 전국 13개 지역그룹이 비영리단체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함께 진행하는 행사이다. 2011년부터 시작된 전통시장 행사는 이번 추석 행사를 포함해 14년간 총 126억원 규모의 식료품을 전통시장에서 구입하고, 19만 2000여 소외 가정에게 명절의 따뜻함을 전달했다. KB국민은행은 올해부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지원금액을 기존 연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하고, 지원대상도 연간 3만여 가구에서 4만여 가구로 확대했다. 지난 10일 손석호 KB국민은행 영업그룹 부행장은 추석을 맞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망원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응원하고, 소외 이웃을 위한 선물을 직접 구매했다. 손 부행장은 "이번 사랑나눔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상생 금융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일송학원, 윤희성 3대 이사장 취임식
"중증질환 중심의 의료서비스 선도"

'피닉스 프로젝트' 강화 예정

학교법인일송학원은 10일 서울시 영등포구 학교법인일송학원 도현홀에서 제3대 윤희성 이사장(사진)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윤 이사장은 "학교법인일송학원은 브랜드 아이덴티티인 봉황(Phoenix)을 키워드로 새로운 시대에 다시 태어나는 한림이 될 것"이라며 "산하기관은 의료데이터와 학문간 융합을 통해 함께 성장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한림대학교의료원은 최상위 진료와 환자중심 트렌드를 선도하고 궁극적으로 중증질환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기관으로서 기능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이사장은 '피닉스 프



젝트'를 강화할 예정이다. 피닉스 프로젝트는 2021년 개원 50주년을 맞아 한자중심 스마트병원 구축을 위해 시작했다. 효율성과 혁신적 우수성을 갖춘 의료진을 육성하고 전문성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및 투자를 기반으로 한다. 동시에 ▲진료 ▲미래 ▲인재 ▲서비스 ▲디지털전환 ▲연구분야를 집중적으로 혁신해 한림대학교의료원을 발전시킨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 이사장은 미국 뉴욕프레스비테리안병원 선임연구원을 지내고 학교법인일송학원 경영전략국장, 상임이사를 역임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인사

- ◆외교부 ▲다자협력·인도지원과장 최중윤 ▲군축비확산과장 윤지영
-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 등운스님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이애령
- ◆한스경제 ▲산업국 총괄팀장 김태형

부음

- ▲ 이희욱(향년 86세)씨 별세, 이재상(OBS경인TV 기자)·이재준씨 부친상, 이수미·오현주씨 시부상 = 10일 오후 11시, 동국대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13일 오전 7시, 장지 용인평온의숲. 031-961-9400
- ▲ 정시영(전 정보통신부 부이사관)씨 별세, 정기환(유진투자증권 영등포지점장)씨 부친상 = 10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 발인 13일 오전 6시 50분, 장지 충북 영동군 선영. 02-2258-

- 5940
- ▲ 최영숙(향년 84세)씨 별세, 정원태(한국유나이티드제약 글로벌개발본부 부사장)씨 장모상 = 9일 오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3일 오전 5시, 장지 경기 파주시 보광시 영각전. 02-2258-5953
- ▲ 박명규씨 별세, 박진오(광주 남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팀장)씨 부친상 = 11일 오전, 광주 서구 VIP장례타운 201호, 발인 13일 오전 9시 30분. 062-521-4444
- ▲ 광찬호(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진구협의회 사무국장·전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향년 97세)씨 별세, 광동동(통일문화연구원 부원장)·광대종(산업연구원 감사실장)·광경희씨 부친상, 이영숙·송미숙씨 시부상, 최병권(전 LG종합상사 파리지시장)씨 장인상 = 10일 오후 4시 34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13일 오전 6시 20분, 장지 국립과산호국원. 02-3010-2000

술과 숙취해소제



연민엽의
푸드톡

술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규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널리 남용되어온 약물을 꼽으려면 단연 술이다. 심리적·신체적 중독성 등 술은 강한 성분의 정신활성 물질에 해당한다. 알코올의 약 10% 정도는 위장에서 흡수되며 나머지 90%는 소장에서 흡수된다. 소장에서 흡수된 알코올은 혈류를 타고 90% 정도 간에서 대사(분해)되고 나머지 10%는 폐, 소변, 땀 등으로 배설된다. 술을 마시면 입안과 소변에서 술 냄새가 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에서 권장하고 있는 한국인 적정 최대 음주량은 성인 남성 기준으로 소주(20도)는 일주일에 2병, 3일에 한 병을 넘어서는 안 되고, 맥주는 일주일 8캔, 하루 3캔이 최대량이다. 포도주는 일주일 8잔, 하루 3잔이다(1잔은 150mL). '적정 음주량'이 아니라 '적정 최대 음주량'이다.

에탄올은 간에서 1단계로 알코올 분해효소(ADH)에 의해 아세트알데히드로 바

뀌고, 2단계로 알데하이드 분해효소(ALDH)에 의해 식초와 유사한 아세트산이라는 물질로 분해된 후 아세트산은 이산화탄소와 물로 최종 분해되어 체외로 배출된다.

술을 마시면 체내에서 알코올탈수효소(ADH)라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디카복실레이즈라는 알코올 분해효소에 의해서 분해(대사)된다. ADH는 에탄올을 분해하면서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형성한다. 알코올이 모두 분해된 후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거의 없어진 상태가 되며 모든 알코올이 아세트알데하이드로 전환되어 이 때가 숙취 증상이 가장 심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숙취와 몸의 독성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은 아세트알데하이드이다. 알코올은 세포내 미토콘드리아 DNA를 손상시킨다.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생산기로서 약간의 손상을 입어도 뇌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

영국 임페리얼칼리지 런던 신경과학과에서는 "알코올은 더러운 마약"이라며 숙취를 유발할 만큼 자주 마시면 우리 몸은 다양한 생화학적, 신경화학적 변화를 초래하고 숙취를 겪는 동안 알코올이 뇌 속 글루타메이트 수용체에 결합하고 전기적

활동이 억제되면서 본질적으로 기억형성을 차단함으로써 뇌의 손상이 축적돼 인지 기능 저하와 조기 기억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음주량이 센 사람과 한잔만 마셔도 얼굴이 홍조(아시아인 플러싱 증후군)를 띠는 사람의 차이는 결국 알코올을 아세트산으로 빨리 대사시켜서 배출하는 능력, 즉 알코올분해효소가 유전적으로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느냐에 달려있다. 알코올이 1차 분해만 이뤄지고, 2차 분해가 뒤따르지 않으면 알코올보다 독성이 더 강한 아세트알데히드가 체내에 남아서 혈관 팽창을 유도하기 때문에 빨개지고 해롭게 된다.

따라서 음주 시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경고신호'를 명심해야 한다. 알코올 분해효소(ADH)가 부족한 사람은 간에 부담을 주고 정상적인 대사작용이 방해되어 숙취현상이 더욱 심해진다.

숙취 예방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술을 적게 마시는 것이다. 적포도주나 위스키 같은 어두운 색 음료 대신 보드카나 진 같은 맑은 음료를 마시거나 계란을 먹는 것도 방법이다. 계란에는 알코올의 신진대사를 늦추는 아미노산시스테인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ESG푸드테크 소사이어티 대표

의대증원 '백지화' 올해는 없다



기지수첩
이현진
(정책사회부)

고교 1학년인 조카의 새로운 과외선생님은 의대생이다. 그는 서울 상위권 의대를 올해 휴학하면서 개인 과외 교습을 시작했다. 내년 학교로 돌아가게 될 경우 과외를 이어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조카는 그를 자신의 교습자로 택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의대 정원을 증원한 게 여러모로 작용했다. 2년 뒤 치를 입지에서 조카가 '증원'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첫째. 집단 휴학한 의대생들이 과외 시장에 몰리며 그간 형성된 시세보다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대생'을 '선생님'으로 둘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갈광질망하는 건 이들뿐만이 아니다.

의료계가 당장 올해 입시부터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라는 요구를 이어가면서다. 야권 일부에서는 "정시모집은 하지 말고 수시모집만 하자"는 취지의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의대 정원 4610명 중 수시에서 70%가량을, 정시에서 나머지를 선발하는데, 수시만 뽑아 총정원을 바꾸자는 의미다. 이에 당장 올해 대입을 치르는 수험생들도 '혹시나 모를' 변수를 두고 불안감을 토로한다.

지난 9일 접수를 시작한 올해 의대 수시는 경쟁 과열 양상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11일 9시 기준 전국 37개 의대 수시는 6.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이미 수시를 통해 의대 입시가 본격화한 상황여서 증원 백지화는 어렵다. 정부도 수험생의 불안 해소와 혼란 방지를 위해 증원 계획이 철회될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올해 의대 증원도 원점에서 재검토'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지만, 정부는 선을 긋고 경계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2026학년도 입시는 다르다. 여야의정 협의체 결과에 따라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축소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올해는 불가능하지만, 2026학년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조정 시기와 방법이다. 정부가 국고 5조원을 지원한다는 '의학교육 투자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대학들은 당장 의대 교수 채용, 노후 건물 리모델링 등을 위한 조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앞서 마련한 '향후 5년간 의대 증원 규모'에 맞춰서다. 추후 정부가 의대의 2026학년도 정원 조정을 논의할 경우,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하는 이유다. /lhj@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9월 12일 (음 8월 10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건강함이 신의 뜻이면서 조상 덕이다. 48년생 까지 못하는 유리천장은 누구에게나 있으니. 60년생 상사의 무시는 말싸움이 아니라 실력으로 배수지진(背水之陣). 72년생 가족이라도 돈 문제를 체크. 84년생 뒤로 가든 한양만 가면 된다.
- 소** 37년생 말에는 각인 효과가 있으니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대로 된다. 49년생 내키지 않아도 웃어야 하니 서글프다. 61년생 먹을 복이 많은 날. 73년생 변화가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일을 성실히. 85년생 주머니 속이 비어 있지만 행복하다.
- 호랑이** 38년생 과거에 배운 기술 쪽 직로를 감사. 50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평화로운 하루. 62년생 모래 위에 세운 성은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린다. 74년생 배우자에게 지 나면 의심을 품지 않는 것이 나을 듯. 86년생 남의 말도 귀담아듣도록.
- 토끼** 39년생 강물과 햇빛은 반짝여야 아름다우니 조화를. 51년생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은 선망의 대상. 63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니 착각하지 않도록. 75년생 오랜 적선이 드디어 내게로 돌아온다. 87년생 흥분은 이로운 것이 없다.
- 용** 40년생 믿는 자녀에게 재산 주고 발등 찍히지 않도록 주의. 52년생 한쪽으로 치우쳐서 충돌되지 않도록 해야. 64년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니 겸손. 76년생 노력하는 자가 목표를 이루게 된다. 88년생 언덕길을 길을 조심.
- 뱀** 41년생 자식이 맘에 안 들어도 내가 낳은 걸 어찌겠나. 53년생 호사다마이니 분수를 지키고 자제토록. 65년생 지인에게 인색하지 않아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77년생 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하면 난관에 봉착. 89년생 말이 많아 실수할 수.
- 말** 42년생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했으니. 54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이 허전하고 인생이 허무. 66년생 마른 눈에 물들어 오듯이 일이 일시에 해결. 78년생 부자가 되려면 결맞게 실천해야 할 터. 90년생 인생은 오늘날 있는 것이 아니다.
- 양** 43년생 늦은 나이에 손실을 비관하면 더욱 슬퍼진다. 55년생 병이 왔으니 약도 주어야 지치지 마라. 67년생 성공의 기미가 보이니 적극적으로. 79년생 노력하다 보면 특출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91년생 사랑은 주는 것이지만 고맙다.
- 원숭이** 44년생 지나친 자랑은 상대를 지치게 한다. 56년생 멀리 떠난 사람을 그리워 말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충실. 68년생 기사화성 되니 이별을 비관하지 마라. 80년생 한밤중에 비단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면. 92년생 입지만 한 번 더 손잡아서.
- 닭** 45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투자는 절제가 필요. 57년생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 했는데 양자를 들인다. 69년생 직장에서 깊은 사랑과 관심을 받는다. 81년생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니 내 마음도 상쾌. 93년생 항상 시간이 아깝다.
- 개** 46년생 자식의 직장에서 좋은 소식을 듣는다. 58년생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는 사랑뿐 아니라 지출도 늘어난다. 70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 82년생 귀인도 자신의 노력이 있어야 오게 된다. 94년생 비구름이 지나고 햇빛이 드는 행운을.
- 돼지** 47년생 돌아갈 수 없어서 그 시절이 더 생각난다. 59년생 망해 버린 나라의 옥새를 끌어안고 있어 본들. 71년생 이직보다는 자신의 결점을 찾아보라. 83년생 이간질 말고 중용을. 95년생 지니의 요술램프처럼 만사가 이루어질길 기도해보도록.



김상회의四季 칠월칠석 이별동화

이별을 주제로 한 비극은 언제나 심금을 울린다. 2024년 칠월칠석에도 어김없이 비가 내렸다. 칠석날 내리는 비는 견우와 직녀의 슬픈 인연을 대변하듯 보슬비 일색이었던 것 같은데 기습 소나비가 한 차례 쏟아 주었다. 국지성 소나기였다. 그런데 같은 서울에서도 강남은 쾌청했다 하니 무슨 일로 견우와 직녀는 한해에 단 하루 해후로도 일 년을 인내해야 하는가. 일년에 겨우 한 번 만나 회포를 푸는 것을 만남이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선조들은 이 잔인한 인연을 아름답게 묘사했을까. 긴 기다림 후의 짧은 만남은 참으로 잔인하다. 게다가 애꿎게도 까치들은 일년에 한 번 만나는 이 인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다리를 만들어 주느라 까치머리가 다 까졌다는 얘기는 답이다. 어찌 보면 잔혹 동화이다. 팔자에서는 검은 머리가 파 뿌리가 되도록 백년해로하는 것을 바람직한 부부인연으로 보는데 그 백년이 어디 행복하고 좋은 일로만 이어지겠는가? 지지고 볶더라도 한 지붕 밑에서 미운 듯하다가도 짝하고 그러다가 또 속 뒤집어지며 희로애락을 함께 하는 것이 부부고 가족의 정일 텐데 말이다.

복이 많은 사람의 기준은 오복을 두루 갖춘 것을 말한다. 부부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한 지붕 밑에 있지 못하고 떨어져 사는 사주가 있다. 부부 사이에 원진, 부모와 자식 사이라도 중이나 형살이 있게 되면 집을 떠나 유학을 하게 된다. 그러는 것이 관계도 좋고 운기에도 저항이 적게 된다. 중이 있다는 것은 서로 간에 기질과 성향이 다르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생각과 생활 방식도 달라서 사사건건 부딪치는 관계가 되니 서로 힘이 들고 상처 줄 일이 생긴다. 형살 역시 가시가 찌르면 깜짝 놀라고 아프듯 떨어지고 거리를 두는 것이니 운명의 이별 동화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5	7				2	4
9				3		7
			6			9
	3					2
4						8
	8			7		
	5	8				3
6	4				7	8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1	2	9	8	2	6	7	9
8	9	2	6	7	8	1	9	2
6	9	7	9	2	1	2	8	8
2	8	9	2	1	8	9	6	7
1	8	9	7	6	9	8	2	2
2	7	6	8	9	2	9	8	1
9	6	1	2	9	7	8	2	8
9	2	8	8	2	9	7	1	6
2	2	8	1	8	6	2	9	9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51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17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경북도, 예산확보·지역발전 위해 국민의힘과 머리 맞댔다

정책현안 대응전략 정책협의회
APEC 특별법 개정 등 과제 설명
낙동강 공원 조성 등 57건 건의

경북도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의
원회관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2025
년 국가투자예산 확보 방안과 지역발
전을 위한 정책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
을 논의했다.

또, 지역발전을 위한 입법과제들도 함
께 논의해 국회 활동과 지역 현안 간 연
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이철우 경북
도지사와 국민의힘 박형수 경북도당
위원장, 경북지역 국회의원, 비례대
표 이달희, 김위상 의원 등 지역 국회
의원 전원과 경상북도 주요 간부들이
모두 참석했다.

먼저 경북도는 올해 도정 운영 방
향인 저출생과 전쟁, 민간투자 활성
화 추진 상황과 경북도에서 준비한 입
법과제들을 설명했다. APEC 특별
법,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
정법 시행령 개정, 원자력 활용 수소
생산 특별법 등을 포함해 APEC정상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역의 산업



경북도와 국민의힘 정책간담회 참석자들이 파이팅하고 있다.

/경북도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은 모
두발언에서 “예년에 비해 당정협의회
가 빨리 개최된 만큼 더 빨리 준비해
서 예산과 정책현안을 협의하며 챙기
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향후 국회 심
의 과정에서 반드시 확보돼야 할
2025년 주요 국가 투자예산 사업의 추
진 상황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전폭
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경북도는 주요 핵심사업으로 낙동
강 호국문화공원 조성 등 정부위 소관
2건, 인공지능 산업육성지원센터 등

과방위 소관 5건, APEC 특별지원사
업 등 외통위 소관 2건, 국립 세계유
산원 등 문체위 소관 5건, 산림 미래
혁신센터 등 농해수위 소관 6건, 백신
바이오의약품 플랫폼 등 산자중기위
소관 11건,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포
항~영덕) 등 국토위 소관 22건 등 총
57건을 건의했다.

한편,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전
년대비 3.2% 증가한 674조원이지만
단계적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건전재
정 기조가 이어져 국비확보가 쉽지 않
은 상황이다. 경북도는 현재 정부에
산안에 전년대비 국비 확보액이 증가

돼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사상 최
대이자 최초로 국비 12조원 돌파에 집
중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은 민선
8기에만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국
가산단 후보지 등 전국 최대 37개 정
책특구가 선정되는 등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다. 예산은 일자리와 도민 생
활에 직결되는 문제로 늘어난 예산만
큼 도민의 삶도 좋아진다고 생각한
다. 2025년 국비 확보액이 최초로 12
조원을 돌파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한
마음으로 계속 도와달라”고 말했다.

/경북=나영조 기자 ray6061@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신안군

종이팩·폐전지 교환의 날 운영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자원 절약과 환경
오염 예방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제16회 자원순환의 날’과 연계하여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종이팩과 폐
전지를 제로 웨이스트 물품으로 교환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원재료 100% 수
입 의존인 종이팩과 수은 등 유해물질을 함
유한 폐전지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매월 첫째주 금요일에는 ‘종이팩·폐전지
교환의 날’이 운영되며, 군민들은 종이팩과
폐전지를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제로 웨
이스트 물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신안(전남)=황세훈 기자 pinksea97@



전남도, 377억 확보... ‘이모빌리티산업’ 해외진출 발판

6개 공모사업 선정 예산 마련
지역 기업과 베트남·인니 등
현지 조립공장 등 수출 추진

전라남도는 이모빌리티산업 육성
을 위한 국가 공모사업에 2024년과
2025년 총 6개 사업에 선정돼 총 377
억 원을 확보, 기업의 동남아 등 해외
시장 진출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의 확대 발판을 마련했다.

2024년 공모 선정 주요 사업은 ▲
이모빌리티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수
출형 초소형전기차 핵심부품 기술개

발 82억 원 ▲이모빌리티 수출 활성화
공동생산 기반 구축 40억 원 등이다. 영
광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에 적합한 차
량 개발, 제조원가 절감 및 시생산 지원
센터의 장비(8종)를 활용한 부품 생산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생산 부품
은 동남아 현지 공장에서 조립·판매해
관세 및 원가절감 등 가격 경쟁력 확보
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25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사업
은 ▲미래 모빌리티 충돌안전 인프라
고도화 172억 원이다. 충돌시험규정
강화에 대비한 충돌시험장 확장 및 장

비 구축 등을 추진해 호남권 유일 충
돌안전 기업 지원 인프라를 구축할 계
획이다. 자동차 부품기업과 현대자동
차·KGM 등 완성차 기업의 충돌시험
을 통한 생활인구 증가로 지역경제 활
성화 등 연간 약 10억 원의 낙수효과
가 기대된다.

전남도는 2014년부터 영광대마산업
단지를 중심으로 자동차 충돌안전 및
전자과 적합성 시험인증센터와 부품생
산 지원센터, 지식산업센터 등 핵심 인
프라와 이모빌리티 기업을 집적화한 산
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지역 기업과 함께 베트남, 인도네
시아, 인도 등을 타깃으로 현지 조립
공장 설립 및 공적개발원조(ODA),
포용적비즈니스 프로그램(IBM) 사업
유치 등 전기이륜차의 동남아 수출 기
반 확대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맞
아 시군별 특화된 자동차산업과 연계
한 호남권 미래차 충돌안전 클러스터
와 전자과 인증 클러스터 조성, 미래
차 테크노링 구축 등 미래차로의 전환
도 준비하고 있다.

영덕군

송이버섯 풍년 기원제 올려

경북 영덕군은 영덕대개와 함께 자연산
송이버섯의 풍년과 생산자의 안전 기원을 위
해 지품면 국사봉에서 풍년 기원제를 지난
10일 지냈다.

이날 기원제는 영덕군을 비롯해 영덕군산
림조합, 영덕국유림관리소, 영덕군청년유도
회, 영덕송이생산자협의회, 영덕군임업후계
자협의회가 참가했다.

산림조합중앙회의 통계에 따르면, 영덕군
은 송이버섯 생산량에서 1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한 명실상부한 최고의 산지로, 2017년부
터 송이 축제를 통해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영덕(경북)=나영조 기자 ray6061@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탄력

한국해양과학기술원가 업무협약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10일 한
국해양과학기술원(원장 이희승, 이하K
IOST)과 해양바이오산업의 지속 가능
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두 기관의 협력 증진 및 발전 도
모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한국해양
과학기술원에서 진행됐다.

주요 협약 분야는 ▲해양바이오 관
련 기술·연구 개발 및 보급, 기업 등의

실증화 지원 ▲해양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 및 인적 교류 ▲해양바이오 및
해양 조사 관련 장비·시설 등의 인프
라 공동 활용 ▲해양바이오 벤처 기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등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의 해양자
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 역
량, 전문성이 연계되면 우리 군 해양
바이오산업의 성장 동력을 얻는 계기
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광주시, 추석연휴 곳곳서 문화행사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 누구나 참
여하고 즐길 수 있는 전통·문화 행사
가 광주에서 풍성하게 열린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14
일부터 18일까지 퓨전뮤지컬, 국악상
설공연, 민속놀이·전통공예 체험 등 다
양한 문화행사를 광주 곳곳에서 진행
한다. 광주예술의전당은 서구 광주공
연마루에서 국악상설공연 ‘오만방자
전라감사 길들이기’ (16일)와 ‘남상일
과놀다가(歌) 쇼(show)’ (17일)를 선보
인다. ‘오만방자 전라감사 길들이기’

는 판소리에 뮤지컬을 더한 퓨전 뮤지
컬이며, ‘남상일과 놀다가(歌) 쇼(show)’는 누구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트로트, 민요, 판소리 등 음악들을 통
해 우리 가락 이야기를 들려준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오는 14일
부터 18일까지 박물관과 야외마당에서
‘2024년 추석 한가위 한마당’ 행사를 진
행한다. 민속놀이체험(14~18일), 퓨전
국악공연(16~17일), 추석다과상 만들
기 등 전통공예체험(16~17일)이 진행
될 예정이다. /광주=양수영 기자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한중일 관광객 4000만명 달성”...공
동선언문 채택 /사진 문체부
▲해리스, ‘트럼프에 승리’ 자평...“할
일 아주 많아” 경계도

▲태국 총리 공무원 제복입고 손하트했
다고 ‘헌법 위반 혐의’ 조사 직면
▲美 42개 주 법무장관 “소셜미디어에
경고 표시 넣어야”



▲독일 내 우크라이나 난민 25만명 보호 지
위 상실 /사진 뉴스스
▲“이주 발표되는 美 8월 소비자·생산
자 물가...금리 인하 폭 결정한다”



유통가
채용시장 위축에
일자리 창출 앞장
나



Life

패션업계
인플루언서 마케팅
재가동
L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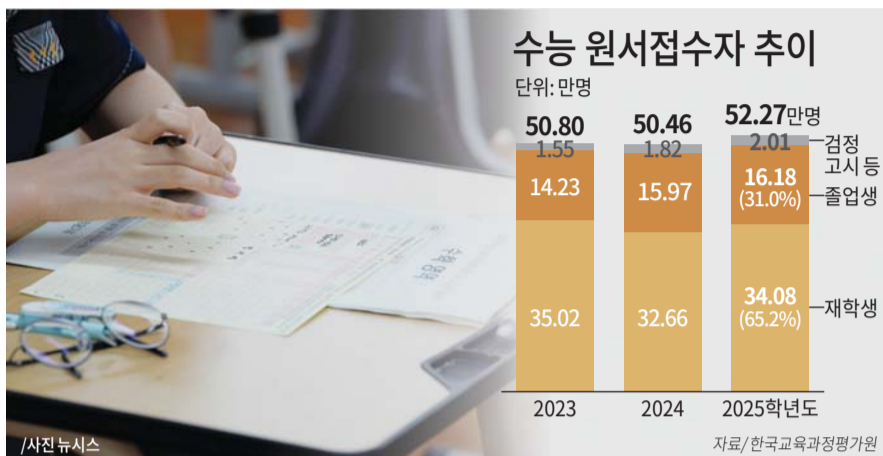
의대 증원, 무전공 확대에 'N수생' 수능 응시 21년만에 최다

2025학년도 수능 52만명 지원 반수생 9만명 추정... 역대 최대 문과생 증가... '사탐런' 현상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N수생' 18만여 명이 지원하면서 21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에 다니면서 다시 입시에 도전하는 '반수생'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실시한 '2025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N수생' 18만1893명... '반수생'도 최다
올해 수능에는 수험생 52만2670명이 지원해, 지난해보다 1만8082명(3.6%) 늘었다. 이중 고3 재학생이 34만777명으로 65.2%를 차지했으며, 졸업생



은 16만1784명(31.0%), 검정고시 합격생 등 수험생은 2만109명(3.8%)이다. 수능 원서를 접수한 고3 재학생 규모는 지난해와 견줘 1만4131명(4.3%) 늘어났다.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올해 고교 3학년이 태어난 2006년에 출생률이 소폭 늘었던 게 원인이다.

수능 응시 N수생 규모도 증가해 2004학년도 수능(19만8025명) 이후 21년 만에 가장 많았다. 올해 졸업생과 검정고시 응시자는 각각 지난해보다 2042명(1.3%), 1909명(10.5%) 늘어 총 18만1893명이다. 특히 검정고시 등 수험생은 수능을 치른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2만명을 넘었다.

올해는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되고, 무전공(전공자유선택제)도 확대되면서 상위 대학으로 재진학하려는 반수생 등 N수생이 크게 늘 것으로 분석된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대학에 재학하면서 수능에 참여하는 반수생 규모는 9만3195명으로 추정된다. 집계 가능한 2011학년도 이래 역대 최대 수준이다.

◆중하위권 수험생 사회탐구 응시자↑
'문과생' 규모는 늘어났다. '문과생'이 수학영역에서 주로 선택하는 '확률과 통계' 응시자는 23만3111명으로, 지원자(49만3279명)의 47.3%를 차지했다. 지난해(46.8%)보다 0.5%p 오른 수치다. 이과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미적분' 응시자는 24만4408명(49.5%)으로, 지난해 49.2% 대비 0.3%p 높아졌고, '기하'는 1만5760명(3.2%)으로 0.9%p 감소했다.

통합수능 이후 수학에서 이과생이 주

로 선택하는 '미적분·기하' 과목이 더 높은 표준점수를 받으며 '이과생'이 대입에서 유리한 결과를 보였고, 이에 따라 응시 규모도 '이과' 쪽으로 기울었지만, 올해는 양상이 다소 바뀐 모양새다.

사회탐구(사탐)만 응시하는 수험생은 26만1508명(51.8%)이었고 과학탐구(과탐)만 응시는 19만1034명(37.8%)였다. 과탐 단독 응시자는 '이과생'으로 간주하는데, 이 수가 지난해(47.8%)보다 4급(4만1932명이 감소)한 것이다.

입시계에선 과탐 학생들이 사탐과목으로 갈아타는 '사탐런' 현상으로 해석했다. 임성호 대표는 "이과 학생이 사탐으로 갈아탄 이런 경우는 대부분 중하위권대로 추정한다"라며 "상위권 대학에서는 자연계의 경우 과탐 과목에 가산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사탐과목 선택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 추석연휴 비상 의료체계 가동 총력

오세훈 시장, 의료계와 진료대책 논의 연휴 때 병원·약국 1.2만곳 지정운영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24시간 가동

오세훈 서울시장의 추석 연휴 비상 의료체계 가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11일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6개 보건의료협의체 단체장을 만나 '문·여는 병·의원, 약국'의 운영 등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 비상 진료 대책을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추석 연휴에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 의료체계를 최대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경증 환자들에게 응급실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오 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 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보건의료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응급실은 정말 위급한 환자들을 위해 배려해야 한다"며 "조금만 더 서로 배려하고 협력한다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9월 14~18일) 응급 환자에 대비해 24시간 응급의료 체

계를 구축하고, 경증 환자들이 쉽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문·여는 병·의원, 약국' 1만2000여곳을 지정·운영한다.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7개 시립병원은 '비상 진료반'을 가동한다.

추석 연휴 때 서울에서는 하루 평균 1184개소, 총 5922곳의 병·의원과 약국 6533개소(일 평균 1306곳)가 문을 연다.

서울시 내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추석 연휴에도 24시간 가동된다. 서울대학교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1개소를 포함해 총 69개 응급의료기관이 문을 연다.

25개 자치구의 모든 보건소가 추석 당일엔 정상 진료하며, 연휴 전후 4일은 각 권역에 전체 인력의 절반을 투입해 비상 진료받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hjk1@

"이제 기후동행카드 찍고 인천공항 가세요"

공항철도 인천공항역 하차 가능해져
출국 관광객 편의↑... 승차는 불가

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공항철도 인천공항역(T1·T2)에서 하차가 가능하도록 기후동행카드의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는 관광객은 30일권과 단기권 등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해 공항철도를 타고 인천공항 T1역과 T2역에서 추가 요금 지불 없이 내릴 수 있게 된다. 기존 기후동행카드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공항철도를 타고 무료로 인천공항까지 도착할 수 있다.

현재 서울역, 공덕역, 홍대입구역 등 시내 6개 공항철도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 승차 서비스가 가능한데, 지난 7월 1일 '관광객용 단기권'이 출시되면서 공항철도 인천공항역(T1·T2)에서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고 싶어하는 외국 관광객들의 요구가 많아 적용 범위를 넓혔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출국하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공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역(T1·T2)의 경우 예외적으로 하차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인천공항역(T1·T2)에서 기후동행카드 승차는 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기초생계급여 추석 전 조기지급

제수용품 등 지급자 부담 줄여

경기도는 기초생활보장 지급자의 9월 생계급여를 정기 지급일(20일) 보다 7일 앞당겨 추석 전인 13일 조기지급한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월 20일 지급하나 제수용품, 명절 선물 등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급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생계급여 지급일 변경을 시군에 요청했고, 이를 위한 세부 일정도 시군에 통보하는 등 급여 지급

시스템 처리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시군과 협력하고 있다.

생계급여는 일상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준중위소득 32% 이내면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고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차등 지급된다. 2024년 4인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월 183만 3천 572원이다. /경기=유진채 기자 yujin@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12 | 해질 / 18:45

9월 12일 (木)
음력 : 8월 10일

수도권 날씨
25~30°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강수량 (mm): 연천 23/30, 동두천 23/29, 가평 22/29, 파주 23/30, 서울 25/30, 양평 24/29, 인천 25/29, 수원 25/29, 용인 25/29, 평택 25/31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테니스 세계 1위' 신네르, 도핑 위반 징계 받나...WADA, 항소 가능성 제기
▲문체부, 체육단체 불공정 '임원 연임심의' 제도개선 권고 /사진 뉴스시스

▲'전체 1순위 키움행' 정현우 "구단 이름처럼, 히어로 될게요"
▲문체부, 배드민턴협회 '체육계 사유화' 지적...낯은 관행 뜯어고친다



▲'반등 신호탄' 김광현, '3연승' SSG 상승세 이어줄까
▲강타자 슈와버, 시즌 14번째 1회 선두 타자 홈런...MLB 신기록 /사진 뉴스시스

뉴스비타민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SAMSUNG

집안 맴핑, 장애물 회피는 당연한 이야기

그런데 보안은 신경안써요?

| 로봇청소기 최초 UL Solutions IoT Security Rating 다이아몬드 등급 / Knox 보안 |

로봇청소기, 오직 안심보안이 답!



스팀부터 보안까지, K-로봇청소기
BESPOKE AI 스팀



세상에 없던
시라이프

K-로봇청소기 이번보상
기획전 방문하기



* UL Solutions의 시험결과에 따른 성능 평가인 UL Solutions IoT Security Rating에서 최고 등급인 Diamond 등급 취득
*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삼성닷컴 참고